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국어영역 사회탐구교과

# 배경지식

Directed by Jcos

윤리학

제 1 교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상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상품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여유를 누리지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갈등 등의 윤리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의 주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지, 기업이냐 국가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누구 하나를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인간을 존중하라.'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토대로 배아 복제 문제를 검토할 때 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복제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배아는 인간이 아니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현대의 윤리 문제는 과거에 비해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윤리 영역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낙태, 생명 복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회 윤리 영역에서는 직업 윤리 문제,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과학 윤리 영역에서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예술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종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평화 윤리 영역에서는 사회 갈등 문제, 통일 문제, 국제 사회의 분쟁과 국가 간의 빈부 격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학문을 이론 학문과 실천 학문으로 구분한 최초의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 따

면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이론 학문은 대체로 진리와 지식의 발견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실천 학문은 진리와 지식의 발견과 더불어 그것의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는데, 대표적인 실천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다.

윤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분석이나 기술에 치중하는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어떤 도덕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이 있다.

한편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제공하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실천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생명 복제, 사형제도, 기후 정의 문제 등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며,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이 때문에 실천 윤리학은 '문제 중심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이라고 불릴 만큼 실천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안내한다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윤리학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천 윤리학은 생명의 존엄성 실현 또는 사회적 효용의 증대 등과 관련된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이론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실천 윤리학도 어떤 윤리 이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을 가진다.

둘째,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자. 앞의 신문 기사에 담겨 있는 윤리 문제는 '무뇌증 태아의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실천 윤리학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의 도덕 원리나 윤리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즉 관련 법률과 무뇌증에 관한 생명 과학 및 의학 지식도 필요하며, 종교계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실천 윤리학은 오늘날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분석하고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위와 같이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① 갑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 ④ 을 :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3.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② (가) :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③ (나) :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④ (나) :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⑤ (가), (나) :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4.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가) :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나) :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2. 동양 윤리의 접근

동양 윤리적 접근은 크게 유교, 불교, 도가 윤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유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에 있다. 공자는 인(仁)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인간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를 계승한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유교 윤리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인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유교 윤리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한다. 유교 윤리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충서(忠恕)'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이나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수기 이안인(修己以安人)'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이렇듯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 윤리의 핵심 규범인 오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교 윤리에서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며,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라는 이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유교 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도덕규범을 지키지 않아 이웃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자기 수양의 자세를 되살린다면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유교 윤리는 인간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을 단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인간을 내면적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유교 윤리는 이러한 풍조를 완화하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교 윤리는 지나친 개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기주의로 변질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윤리를 현대적으로 되살린다면 이러한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일정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

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윤리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4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계, 정, 혜의 삼학 등과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면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연기적 세계관,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을 특징으로 하는 불교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불교 윤리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고통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불교는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현대인들이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불교 윤리는 생명 경시 풍조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 윤리는 보편적인 인류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이들이 전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대중을 구제하려고 했던 불교 윤리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하여 전 세계인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도가 윤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노자는 “도(道)는 자연을 본 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윤리는 이러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1국 과민을 이상 사회로 본다.

더불어 도가 윤리는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한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여,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를 제물(齊物)이라고 한다. 도가 윤리는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좌망과 심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천인(天人)이라고 부른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과 평등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도가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도가 윤리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위자연이나 제물을 강조한 도가 윤리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

복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또한 도가 윤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가 윤리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5.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섬길 뿐, 그것들과 다투는 일이 없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받을 일도 없다.

- ① 집착에서 벗어나 무욕(無欲)에 이르는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② 선천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자연 만물의 연기성(緣起性)을 깨달아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해 거경(居敬)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6.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慎獨]이다.

- 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禮)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②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한 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④ 우주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7.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8.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①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④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慎獨)해야 한다.
- ⑤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3. 서양 윤리의 접근

서양 윤리적 접근은 크게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도덕 과학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탐구할 때 동양 윤리적 접근과 더불어 서양 윤리적 접근을 통해 더 풍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의무론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며, 우리의 행위가 이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의무론의 대표적인 윤리 사상으로는 칸트 윤리와 자연법 윤리가 있다.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칸트는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였다. 칸트는 어떤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당 준칙을 보편 진술로 바꾼 후에 그 진술을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 진술이 이 검토를 통과하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여 도덕적 판단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론적 접근의 또 다른 예로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에서 자연법 윤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 윤리는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한다.

자연법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해 냈는지를 주목한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善)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

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낮은 수준의 쾌락과 높은 수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하고 그 질적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행위의 결과인지, 그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인지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한다. 이때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라는 물음을,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이다. 이는 예상되는 비용과 혜택의 비율을 따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에 따른 혜택을 계산한 후,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 개발을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둔 현대의 덕 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덕 윤리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덕 윤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한다. 매킨타이어와 같은 현대의 덕 윤리학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 따라서 덕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를 반영한다.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덕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고 요구한다. 즉 "보편타당한 규칙을 따르라." 또는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위하여 "정직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하라."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덕 윤리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덕 윤리는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품성의 바름'을 추구하는 덕 윤리는 실천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윤리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탐구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덕 윤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에 관한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학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도덕 과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덕 과학적 접근으로는 신경 윤리학과 진화 윤리학이 있다.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 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진화 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신경 윤리학이나 진화 윤리학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도덕적 삶의 방향이나 목적의 설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오늘날 당면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도덕 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① 갑 :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을 :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또한 위험에 당면해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문제 상황>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 책임자이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A에게 고객 B의 부당 거래가 의심이 된다며 B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고객들과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A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판단하세요.
- ② 개인의 권익이 회사와 공동체의 이익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세요.
- ③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 의식에 의해 상사의 요구에 응하세요.
- ④ 개인 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을 측정해 판단하세요.
- ⑤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1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나)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체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 ③ (나):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 ④ (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⑤ (가), (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12.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을 :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②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④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13.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을 :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4.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탐구란 진리와 학문 등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탐구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지식 획득을 위한 방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도덕적 탐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탐구란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며,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도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의 방법을 중시한다. 이러한 도덕적 탐구는 일반적인 탐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도덕적 탐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당위적 차원에 주목한다. 일반적인 탐구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도덕적 탐구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하여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을 밝혀서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덕적 탐구는 대체로 합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도덕적 추론이란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 탐구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인 측면도 중시한다. 흔히 도덕적 탐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 도덕적 분노,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는 탐구의 정당성을 높이고 탐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다.

도덕적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탐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탐구는 개념의 명료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찾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중요하다. 도덕적 탐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탐구의 방법을 반영하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도덕적 탐구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즉 윤리적 쟁점 혹은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대안을 설정하며, 이에 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다.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할 교환 탐색과 보편화 가능성 탐색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이때 토론을 통해 윤리적 쟁

점 또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반론하기, 정리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은 자신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주장을 관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도덕적 탐구 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탐구 과정에서 나의 참여 태도는 적절했는가? 탐구 활동을 통하여 배운 점은 무엇인가? 처음의 나의 생각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덕적 탐구 방법의 다섯 단계는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이를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적 탐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윤리적 성찰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이다.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연결된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비도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성찰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나아가 도덕적 자신의 변화 혹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먼지 낀 거울을 매일 닦아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성찰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응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기 중심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정당한가? 왜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유형의 물음을 스스로 묻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며, 이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서양의 풍부한 윤리적 전통에 근거한 윤리적 성찰의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유교에서는 증자가 제시한 일일삼성(一日三省)이나 서경의 수양 방법이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참선을 성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선은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앉아서 하는 수행법이다. 더불어 서양 윤리적 전통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 있다. 산파술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 탐구나 윤리적 성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윤리적 성찰 없이 도덕적 탐구에만 치중한다면 단순한 지식과 사고력만 향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탐구 없이 윤리적 성찰에만 치중한다면 사물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이치에 관한 진정한 깨달음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탐구와 성찰은 공허할 뿐이다.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배움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 사람됨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체의 활동 과정을 ‘윤리학’이라고 한다.

인간은 윤리적 삶을 영위해 가는 도덕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 14.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실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을 :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갑 :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까요.

을 :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 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속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 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 ③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5. 삶과 죽음의 윤리

생물학적 의미에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단계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은 기쁜 마음으로 그 생명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출생이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생이 갖는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출생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다. 출생을 통한 신체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도덕적 주체로 성장해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에서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 삶은 도덕적 완성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출생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출생과 동시에 인간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가 되어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오늘날 생명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생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우리는 위와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 출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 과정에 의료 기술이 개입하면서 인공 임신 중절, 생명 복제 등의 문제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출생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아프다가 죽는 것 [生老病死] 이 인간의 삶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누구나 한번은 죽는다는 점에서 일회성을,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역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죽음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며 살라고 하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또한 죽음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슬픔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례(喪禮) 및 제례(祭禮)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위와 같이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낙사 등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낙태'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윤리 이론은 인공 임신 중절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불교 윤리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살아 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목인해도 안 된다.'라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어기는 행위로 본다. 자연법 윤리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생명과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칸트 윤리에서도 인공 임신 중절을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보편화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통해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모자 보건법」에서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보호할 것인가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입장(pro-life)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입장(pro-choice)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고 있다.

또 하나의 윤리적 쟁점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 임신 중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은 태교를 강조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 출생과 동시에 나이를 한 살로 셈하는 전통, 태아에게 상속권 등의 일정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도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논쟁하는 인공 임신 중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살에 관해 인류가 공유하는 태도는 자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살이 갖는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먼저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유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보며, 불교는 '불살생'의 계율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스도교는 신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아퀴나스는 자살이 자기 보존을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라고 본다.

또한 자살은 자기 삶의 일회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를 실현할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일이다. 칸트는 자살이 인간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쇼펜하우어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으로 한 번뿐인 삶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살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며,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킨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자살의 원인은 심리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명의 가치

와 삶의 소중함의 관점에서 자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중시한다. 이들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며,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교 및 도가뿐만 아니라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이와 같은 안락사 논쟁에서는 환자의자율성 존중,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의료인의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죽음을 판정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심폐사이다. 즉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해야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간혹 사고 등으로 심장 및 폐의 기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어 뇌사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뇌사에 이른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호흡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한다. 이러한 뇌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이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뇌 기능이 정지하면 가까운 시기에 심장과 폐의 기능도 정지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이나마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므로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드물지만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도 제기한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윤리적,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보 기 >

- ㄱ. 갑 :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을 :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 ㄷ. 을 : 태아는 합리적 · 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을 : 성인(聖人)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다.

- ① 갑 :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갑 : 죽음은 내세(來世)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 ③ 을 :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道)와 연관된 현상이다.
- ④ 을 :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이다.
- ⑤ 갑, 을 :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

20.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네.

(나) 삶과 죽음은 춘추동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하네.

— < 보 기 > —

ㄱ. (가):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ㄴ. (가):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ㄷ. (나):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ㄹ. (가), (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을 :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① 갑 :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 ② 갑 :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을 :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 ④ 을 : 현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는 존재이다.
- ⑤ 갑, 을 :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2.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희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 보 기 > —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ㄷ. 환자가 희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6. 생명 윤리

오늘날 생명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에 생명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생명 윤리는 생명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생명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생명 윤리는 윤리학적 접근을 통해, 생명 과학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생명 과학은 주로 생명의 외적인 현상을 다루므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온전히 밝혀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알기 위해 동서양의 생명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양의 도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불살생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보존을 주장한다.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도 일정한 위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생명관은 아퀴나스와 슈바이처의 생명 사상 등으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동서양의 생명관은 모두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생명 복제란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1996년 포유류인 양을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복제하는 데 성공한 이후 다른 포유류에서도 복제가 성공하고 있다.

생명 복제는 크게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로 나뉜다.

동물 복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윤리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자.

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물 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고, 희귀 동물을 보존하며,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물 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결과나 행복의 증진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동물 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 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복제는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로 나뉜다.

배아 복제는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 후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배아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를 활용해 난치병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아 역시 인간의 생명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며, 복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난자 사용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체 복제는 복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간 복제는 이를 가리킨다. 불임 부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개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개체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개체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은 복제를 원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둘째, 개체 복제는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어긋난다. 인간은 남녀 두 사람의 사랑과 상호 의존에 의하여 태어나는데,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인간이 복제된다면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파괴될 수 있다.

셋째, 개체 복제는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한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유전 형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고유한 유전 형질을 가진다. 그러나 복제된 인간은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으므로 자신의 고유성을 갖기 어렵다.

넷째, 개체 복제는 가족 관계에 혼란을 준다. 체세포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부모 자녀 관계인지 아니면 형제자매 관계인지가 불분명하다.

동물 복제와 배아 복제에 관한 찬반 논쟁, 그리고 개체 복제에 관한 반대 입장은 생명 복제가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복제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생명 과학 기술은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토대로 발달해야 한다.

유전자 치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세포 또는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이 확립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과학적, 의학적, 윤리적 검토의 과정을 거쳤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윤리적 검토를 할 때는 생명 의료 윤리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생식 세포, 배아, 태아에 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의 허용 여부는 의학적 안전성 및 유용성, 생명 의료 윤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물 실험은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화장품과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실험 방법 교육 등에서 광범위하게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 실험은 우리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실험용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개, 고양이, 돼지, 그리고 영장류 등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용 동물을 공급하는 상업 회사들도 있다.

그런데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구별하고, 인간을 위해 다른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 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넣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 중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둘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례는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동물 실험에 관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다. 많은 사람은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재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 마취제 없이 이루어진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레건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한다.

위와 같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인공 피부 실험, 컴퓨터 모의실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동물 보호 및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이에 관한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2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에도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2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2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27.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 보 기 > —

ㄱ.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의학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 :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것이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갑 :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신할 믿을 만한 대안이 없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을 : 아직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①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 ③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④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2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동물 실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은 우리 종의 구성원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차이에 호소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 < 보 기 > —

ㄱ.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동물 실험은 부당한가?

ㄴ. 실험실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중 차별주의적인 행위인가?

ㄷ.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ㄹ. 인간과 동일한 권리들을 지닌 동물을 실험하면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7. 사람과 성 윤리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이끌며,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한다. 인격적 교감은 인간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사랑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성(性)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는 보다 더 친밀한 교감을 위해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으로서 생식적 가치를 지닌다. 생식적 가치는 자연법 윤리에서 말하는 종족 보존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쾌락적 가치를 지닌다. 쾌락적 가치는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성은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주는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보수주의 입장은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며,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중도주의 입장은 사랑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을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으며,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는 남녀가 육체적 우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은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숙한 성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옹호하며, 성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

이처럼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사랑과 성이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다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사랑과 성은 서로의 인격을 교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을 잘못 인식할 경우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다. 흔히 남성은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여성은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여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후 이를 따르게 한다면 다양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차별

은 남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어 보자.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무분별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무고한 인간 생명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과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 상품화란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성매매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성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상품화에 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성 상품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성의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성 상품화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 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고 본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 상품화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또한 성 상품화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에만 두는 등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 상품화에 관한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성 상품화에 관해 바람직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며 인류 존속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이라는 공식 제도를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으로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양가 친지나 자녀 등 다양한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예기』에서는 “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인은 만세의 이어짐이다.”라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개인은 결혼을 통해 윤리적 삶으로 들어가며 가족 안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혼에 담긴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결혼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결혼을 ‘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결혼은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성격과 습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은 부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및 관용을 요구한다.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가사 분담의 문제 외에도 부부간의 윤리 문제로는 경제적 문제, 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 등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부간의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부부는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길리건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덜 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 강조한 부부간의 윤리로 부부상경(夫婦相敬)이 있는데, 이는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음양론에 따르면 음양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음양론의 교훈을 되살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간에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간에 정조(貞操)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고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부부간의 윤리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켜 나갈 때 우리는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가족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가족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준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서 생긴 심신의 피로를 가정에서 풀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가르쳐 주어 우리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된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집단으로서 가족의 화목과 안정은 사회 전체의 화목과 안정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가족 간 대화 단절, 가정 내 아동 학대, 이혼 등의 가족 해체 현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해체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면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부모와 자녀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 전통 윤리에서는 자애와 효도를 부자유친(父子有親)과 부자자효(父慈子孝)의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우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씬우제공을 들 수 있다. 형제자매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의 자애와 효도,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31.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갑: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을: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32.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3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제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 < 보 기 > —

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양로(養老)의 예법 중에는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절차가 있다. 그러므로 목민관(牧民官)은 노인에게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과 질병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그 절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목민관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령의 노인을 위해 혜택을 베풀고, 양로의 예법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면, 백성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게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ㄴ.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 장유유서(長幼有序)를 구현할 수 있다.  
 ㄷ.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ㄹ.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은 정신적·물질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직업과 청렴의 윤리

고등학생이 된 우리는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한다. 이는 직업 선택이 인생의 방향이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직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동양에서 한자어 직업(職業)의 ‘직(職)’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의미하고, ‘업(業)’은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한다. 서양에서 직업을 뜻하는 영어 ‘아큐케이션(occupation)’이나 ‘잡(job)’은 보수와 금전을 획득하는 경제력의 근원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프러페션(profession)’은 일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한다. 영어 ‘보케이션(vocation)’이나 ‘콜링(calling)’은 사명감, 신의 부름을 받아 행하는 일로 도덕적,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직업이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일정 기간 일에 종사하며 경제적 재화를 받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거나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개인이 평생 여러 직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업은 우리의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먼저 직업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우리는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간은 직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감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직업은 자아실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잠재적인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직업은 경제적 기반의 토대이자 사회와의 연결 고리이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게 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인격을 형성하여 행복한 삶에 이른다. 우리는 삶에서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때 다양한 경험과 탐구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직업 생활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직업 윤리란 직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으로, 예로부터 동서양에서는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양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소명(石命) 의식을 강조하였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종사하

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검소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동양의 유교 윤리에서도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이 전해 온다. 공자는 『논어』에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직업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인(匠人)정신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장인 정신이란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평생 한 가지 일에 헌신해 온 장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강조되는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서양에서는 모두 직업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의식이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일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 윤리,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윤리 등은 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 윤리의 특수성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직업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직업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가는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기업가의 경제 활동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기업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가의 이윤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편법이나 탈세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건전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기업가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업가와 더불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업가와 맺은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약속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관해 전문성을 가질 때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개인과 기업,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기업가와 근로자는 고용 문제, 근로 조건 등과 같은 쟁점에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상생적 관계이기도 하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앞서 살펴보았던 기업

가 윤리와 근로자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 노사협의회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직이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은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각각의 직능 단체를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윤리 현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공직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맡은 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이 백성을 위하여 있듯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이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하여 공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할 경우 국가와 국민 생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공직자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만, 직업 생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을 때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패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렴이란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렴을 강조하는 전통 윤리로 청백리 정신을 들 수 있다. 청백리 정신은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려는 정신이다. 청백리 정신을 강조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오늘날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의 전반에서 청렴의 윤리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생활의 전반에서 청렴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청렴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을 준다. 청렴은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청렴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 청렴은 직업인에게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직업 윤리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직업 생활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 윤리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부 공익 신고 제도 운용, 부패 방지법 제정,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등과 같이 청렴 의식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 할 수 없다.

-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3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 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 ③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으로 보는가?
- ⑤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3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을 :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 보 기 >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 보 기 >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9.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 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清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움 청탁(請託)은 가능하다.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40.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서 보답해야 한다.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 9. 사회 정의와 윤리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부정부패 등과 같은 사회 문제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 회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규범으로서의 사회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 윤리를 강조한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정의를 사회의 도덕적 이상으로 제시하며 사회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이다. 공정함 또는 올바름이라는 정의의 개념은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사회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회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이익과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과 관련된 것이 분배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된다.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는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등이 있다. 그런데 각각은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각각의 분배 기준은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분배 기준 자체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보고, 분배 방식을 결정할 때 특정한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논의의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준수되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롤스와 노직을 들 수 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지위나 계층, 능력 등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우연적인 조건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갖고,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된다.

반면 노직은 제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제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다양하다. 이 기준을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할 때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상의 논리가 있다. 과거의 차별 때문에 고통받아 온 사회적 약자는 그 고통에 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분배의 논리가 있다.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유리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 논리가 있다. 우대 정책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비판한다. 먼저 우대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차별에 관해 잘못이 없는 현대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대 정책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업적 주의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세와 같은 조세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부유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부유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세는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부자들에게 대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정적 정의는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주로 국가가 법 집행에 의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법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응보주의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관점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공리주의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처벌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점은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알아보자.

먼저 처벌의 근거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준 사실만을 처벌의 근거로 본다. 반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이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처벌의 정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는 사회의 이익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한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형 제도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형이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 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 처벌로서의 적합성과 예방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생명권을 제한해야 하며, 사형 제도가 극악한 범죄에 관한 처벌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응보주의 관점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보의 원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특히 칸트는 동등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범죄는 사형을 통해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장해야 하며, 사형 제도가 예방 효과가 없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처벌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수 예방주의 관점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형 제도의 찬반 논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는 인간 존엄성, 처벌의 본질,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

4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42.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 ② 을: 노동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4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4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어나 적합한 형벌이다.

< 보 기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5.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을: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 ①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 ②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 ④ 형벌로 얻는 공공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10.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는 구성원인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시민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국가가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국가가 가지는 권위는 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니는 명령권 혹은 통치권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먼저 서양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라고 하여 국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 본성에 따라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된다.

또한 동양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가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외에 국가가 각 개인에게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동양에서는 주로 국가의 권위를 민의에 기초한 천명(天命)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특히 유교 사상은 군주의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보며,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므로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가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때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에는 먼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로크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위나 일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자격이나 자유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맹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부도덕한 일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국가는 개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할 때 국가 권위의 정당

성을 얻을 수 있다.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우선시한다면 오히려 각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이 해야 하는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핵심적 자질로 여겼다. 또한 동양에서는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제도가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주인 의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여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참여는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보장받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시민의 참여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거로 뽑힌 시민의 대표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시민을 대변한다.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이들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했는지, 또 제대로 심의했는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주민 투표,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 참여, 시민 단체 활동,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 행정 기관에 민원 청구 및 건의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다양한 참여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참여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

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간디는 영국의 부당한 법률을 거부하고 인도 국민의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소금 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간디와 그 일행은 소금을 직접 만드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금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처럼 시민 불복종은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간디는 소금 법을 폐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식으로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확실히 시정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기다리기에는 피해가 점점 심각해질 때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간디와 그 일행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은 위와 같은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 보 기 >

ㄱ. 갑 :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ㄴ. 갑 :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ㄷ. 을 :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ㄹ. 갑, 을 :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을 :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 보 기 >

ㄱ.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ㄴ. 을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ㄷ.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ㄹ.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4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에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을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주로 행해지며,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다. 한편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도의 적절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민 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항의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11. 과학과 윤리

인간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발달시켰다. 특히 20세기 이후 등장한 핵융합 기술, 우주 공학 기술, 디지털 기술, 로봇 공학 기술, 생명 공학 기술 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

먼저 과학 기술은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 주었다. 기계 공학의 발달 및 신소재의 개발 등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삶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 기술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검진 기술과 치료법, 신약 등이 개발되어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만을 안겨 준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증가는 대기 오염 등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동식물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학은 원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휴대 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 정보 관용티콘' 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과학 기술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등장하면서 생명체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과학 기술 지상주의나 부정적인 면에만 주목하는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최소화해야 한다.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에 관한 종교적 간섭이나 윤리적 평가 등 과학 기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현대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과학 기술도 윤리적 평가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보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즉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및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가치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과학 기술이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정당화의 과정과 달리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화의 과정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이론을 증명할 때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이론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견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본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가 활용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정당화의 과정에서는 타당하지만,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되고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과학 기술의 본질이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획기적인 과학 기술이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학 기술의 연구나 활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윤리는 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공하며, 과학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이 전문화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 기술 연구자에게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연구비가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과학 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 기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즉 과학 기술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

과학 기술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물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날조, 연구 재료와 절차 등을 조작하는 변조, 타인의 생각과 결과 등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는 표절 등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과학 기술 연구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 기술은 연구 윤리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학 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과학 기술을 개발할 때는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즉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걸맞은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자연을 통제로 파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자연은 물론 미래 세대로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아나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정 기술, 식량 증산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술 영향 평가 제도, 과학기술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 과학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과학 기술의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과학 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과학 기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5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5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을 통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을 :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 ① 인공 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가?
-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 ③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 ④ 위급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가?
- ⑤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5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 ① 갑 :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 ② 갑 :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 ③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④ 을 :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⑤ 갑, 을 :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5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54.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재대는 의무자가 된다.

— < 보 기 > —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2. 정보 사회와 윤리

현대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생활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는 시장이나 매장,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맞춤형 누리 방송(IPTV) 등을 통해 장보기, 금융 거래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신분의 노출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학, 법률 등 과거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정보들이 블로그나 텔레비전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어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전 세계의 정치, 제도, 예술,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더욱이 한 번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생활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상 털기 등의 사생활 침해는 한 개인에 관한 평가를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행복 추구를 방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기사, 사진, 영상, 음원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소유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널리 퍼지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copyright)'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강조하는 '정보 공유 권리(copyleft)'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로, 저작물에 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의 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권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 기술은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윤리적 성찰이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서 정보 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인간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보의 이용 가치만을 중시하지 않고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고립주의나 이기주의를 넘어 타인과 건전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이나 사생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정보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정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매체(media)란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19세기에는 책과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20세기 초반, 중반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가 정보 전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뉴 미디어(new media)'라고 한다.

뉴 미디어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인쇄 매체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책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방송 매체는 인터넷과 연결된 맞춤형 누리 방송과 위성 방송 등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SNS, 블로그, 유시시(UCC) 등의 사회적 매체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뉴 미디어는 상호 작용화, 비동시화, 탈대중화, 능동

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뉴 미디어는 송수신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적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게재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랍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 미디어에 대하여 엄격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갖고 매체 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56.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하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설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을 :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 < 보 기 > —

ㄱ.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ㄴ. 갑 :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ㄷ. 을 :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ㄹ. 갑, 을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갑: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③ 을: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④ 을: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5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한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 보 기 >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 한다.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물을 창출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저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돼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창출한 생성물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식화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독창성만 인정되면 저작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독자적 사고를 하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되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이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을: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공지능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독창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②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가?
- ③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④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⑤ 약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모두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61.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 ④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13. 자연과 윤리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자연을 상의와 화해의 대상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유학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인(仁)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연기설(緣起說)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 도가에서는 천지 만물을 무위(無爲)의 체계로 보고 인간도 인위적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인간이 신의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자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자연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의 자연관으로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수용함과 동시에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윤리적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구분된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동물이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으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중시하였다.

베이컨은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칸트 역시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였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류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여 오늘날 발생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자연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물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싱어와 레건이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며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레건은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레건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 및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명 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을 '생명'으로 보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한 슈바이처와 생명의 목적성을 강조한 테일러가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서명 외경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생명을 고양하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며,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때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를 의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격체와 닮은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명체에 까지 확대하여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 입장에서는 생명 개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개체 중심적인 환경 윤리는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생태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일론(全一論)적 입장을 취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와 심층적 생태주의를 주장한 네스가 있다.

레오폴드는 대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며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대지 윤리는 인간이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흙과 물, 동식물과 인간까지 포괄하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네스는 인류의 건강과 풍요를 위해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바꾸는 심층적 생태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의 주장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으며,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62.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  
 을 : 오직有情(有情)적 존재만이 이익관심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다.  
 병 :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욕구, 지각, 정체성, 목표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며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①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가?
- ② 인간은 동물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는가?
- ③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가?
- ④ 이익관심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조건인가?
- ⑤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한해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가?

63.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 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 보 기 >

ㄱ.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ㄴ.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4.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드라마당은 끝없이 큰 그물로서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구슬들은 혼자 빛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슬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풀무\*의 바람 통처럼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다.

\*대장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 보 기 >

ㄱ.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ㄴ.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ㄹ.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나)는 합일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5. (가)의 관점에서 (나)의 자연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자연은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베풀며,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이다.  
 (나) 부분의 특성과 움직임이 전체를 결정하므로 고립된 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물리 현상은 고립된 입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분할해 갔을 때 도달하는 최소 단위의 것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 ① 자연은 인간과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②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과학적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
- ③ 자연의 모든 존재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자연은 생명력이 결여된 입자들의 집합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⑤ 자연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14.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는 기후 정의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생태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있다.

기후 정의란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개발 도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지만 피해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 정의는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피해를 본 나라들에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75%가 선진국에서 배출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관점에서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도 산업 구조를 생태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각 국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각 국가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 쟁점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후손은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미래 세대도 현재대와 다름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비옥한 토양, 신선한 물과 공기,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정언 명령으로 표현하였다. 요나스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등을 제시하였다. 인류 존속을 위해 현재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가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즉 자연 개발과 자연 보존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도 환경 문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 중 하나이다. 개발론자는 자연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 개발을 강조한다. 반면 보존론자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존을 강조한다. 두 입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이다. 즉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개발과 보존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자원을 덜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덜 만드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관련 제도와 법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열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나 환경 오염 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합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녹색기후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6. 갑, 을 사상가들이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현대의 기술로부터 산출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워서 전통 윤리의 틀로는 이 행위들을 파악할 수 없다.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인류의 미래와 실존을 고려하는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  
을 : 자연 세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이익 관심을 토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윤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하는 일이다.

< 보 기 >  
ㄱ. 갑 :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ㄴ. 갑 :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규범 체계가 요청된다.  
ㄷ. 을 : 해악 금지의 원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갑, 을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오늘날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권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세대는 미래 세대가 환경적으로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세대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존재와 함께 시작되므로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습니다.

을 : 아닙니다. 권리의 소유는 존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현세대의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될 미래 세대를 도덕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① 환경권의 귀속을 현존하는 인간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 ②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무는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인가?
- ③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가?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는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는가?
- 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인가?

6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차원에서 교토 의정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각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별로 배정받은 배출권을 기업별·부문별로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해야 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배출 상한치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① 자연 보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부정한다
- ② 법적 강제력보다 기업의 자율적 준수만을 강조한다
- ③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 일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경제력이 있으면 환경 파괴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 ⑤ 개인의 생태적 각성을 통해서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15.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이나 그림, 문학 작품 등을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윤리적 선(善)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이 입장에서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본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 즉 예술가가 윤리적 기준과 관습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예술이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참여 예술론’을 지지한다. 참여 예술론은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이고 예술 활동도 하나의 사회 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의 도덕적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 중 하나의 입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고, 또한 도덕주의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고려하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에 의지하고, 예(藝)에서 노닐어야 한다.”, “예(禮)에서 사람이 서고, 악(樂)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술을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방편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예술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예술의 상업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술의 상업화란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예술의 상업화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로 주로 부유한 일부 계층이 누리던 예술을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

익은 물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술의 상업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 작품을 단지 하나의 상품이자 부의 축적 수단으로 바라보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한 나머지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에 관해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예술의 상업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의 상업화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영화, 음악, 드라마, 공연,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다. 대중문화란 다수의 사람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등 우리의 삶은 대중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 내포된 생각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가치관, 취향, 삶의 형태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 및 뉴 미디어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중문화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현대인의 삶이나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중가요, 영화, 게임 등의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추구

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가 있다. 이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모방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이란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의 대중문화는 막대한 자본 투자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규모에 따라 대중문화의 흥행이 좌우되면서 투자자나 자금력을 갖춘 일부 문화 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여 작품이 선정되고 제작되면서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대중의 삶도 획일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생겨나면서 대중

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성의 상품화 예방을 강조한다.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에 해로운 대중문화를 규제로 걸러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대중문화의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성적인 요소나 폭력적인 내용을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지면 이는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찬반양론을 모두 고려하여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대중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체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건전한 대중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중문화를 생산해야 한다.

더불어 법적, 제도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법 등을 통해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해야 한다.

69.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 < 보 기 > —
- ㉠.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활동이어야 한다.
  - ㉡.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 ㉢. 예술가는 미(美)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0.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을 :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① 갑 :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② 갑 :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 ③ 을 :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 ④ 을 :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⑤ 갑, 을 :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71.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악(樂)은 '같은'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은 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 기 >

ㄱ. (가) :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막아 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고유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의복은 자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다. 우리는 의복을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착용하는 의복이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제2의 피부'로서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복은 예의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혼상제 등의 중요한 행사에 격식 있는 의복을 착용하여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착용했는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명품 선호 현상도 의복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명품 선호 현상의 긍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명품의 우수한 품질과 희소성은 만족감과 더불어 소유자의 품격을 높여 준다고 주장한다.

명품 선호 현상의 부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과시적 소비라는 그릇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소비와 사치 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난 그릇된 소비 풍조가 조장되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 계층 간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나 자신의 태도를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복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음식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먼저 음식은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도덕성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영향을 준다. 믿을 수 있는 음식의 생산과 유통은 사회의 도덕성을 구현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 재료를 획득하고 가공할 때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간과할 때 독성 성분에 오염된 음식 재료나 인체에 유해한 각종 식품 첨가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나친 육식은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고, 무분별한 식량 생산 및 소비 과정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타인은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는 음식 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로컬푸드 운동'이나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하기, 육류 소비 절제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이나 성분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며,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주거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윤리적 의미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다.

공동 주택의 폐쇄성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어 이웃 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도시에 주거가 밀집하면서 환경 오염, 교통 혼잡,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집을 오로지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집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주거의 본질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집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간 삶의 기본 바탕이자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를 고려하는 주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야 한다. 15

의식주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공동체 및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복, 음식, 주거와 관련한 생활에 필요한 행동 규범인 의식주 윤리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선택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 대비 만족도이다. 다시 말해 같은 조건일 경우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최대의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처럼 자신의 경제력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한다면 생산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부적절한 원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오염에 관한 대책을 외면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저임금을 강요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동물에게도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소비 행위가 타인과 사회는 물론 생태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가격을

소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원료의 재배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윤리적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 무역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면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그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종 위기 동식물을 이용한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고효율 전자 제품이나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억제한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여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윤리적 소비는 인권, 정의, 환경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윤리적 소비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 사회의 혜택을 소비자도 누리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 정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 구입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윤리적 등급에 따른 상품의 비교 구매, 공정 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농산물 등 바람직한 윤리적 상품의 구매,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사용, 재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 인증과 환경 마크, 기업의 윤리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 등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권, 정의, 환경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7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협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적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지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 ④ 외부 공간은 위협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73.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74.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비는 자신을 넘어 사회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가) : 자율적 선택권과 최적의 효용은 소비의 필수적 요소이다.  
 ㄴ. (가) : 개인적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ㄷ. (나) :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비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ㄹ. (가), (나) : 인권과 노동의 가치는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소비의 목적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 그러한 주장은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① 시장 경제 논리는 비용 대비 최대 편익을 강조하는가?
- ② 합리적 소비만으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③ 소비 활동을 통해서 자원 남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가?
- ④ 소비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하는가?
- ⑤ 자원 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가?

17. 다문화 사회의 윤리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도입되어 사회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거대한 용광로, 즉 주류 사회에 융합하여 편입시키려는 관점을 지닌다. 동화주의의 입장은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샐러드 볼 이론’과 ‘국수 대접 이론’이 있다. 샐러드 볼 이론은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 이 때문에 각 재료의 특성이 살아 있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수 대접 이론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류 문화는 국수와 국물처럼 중심 역할을 하며, 이주민의 문화는 색다른 맛을 더해 주는 고명이 되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기 때문에 타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샐러드 볼 이론과 차이가 있지만,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 입장을 통해서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하여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관용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이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홀은 ‘차이와 더불어 살아 가는 능력’이야말로 21 세기에 개인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무조건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위 사례의 명에 살인이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윤리도 문화에 포함되므로 옳고 그름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보편 윤리를 위배하는 문화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나 인종 차별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난다.

또한 자문화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문화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리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를 부정하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방해한다.

이처럼 윤리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먼저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용해야 한다. 인종을 차별하거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인권,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수혈주의도 외국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용해야 한다.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용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용의 역할’을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서(恕)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다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종교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다. 종교학자 엘리야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Homo religiosus)’로 규정하며, 종교적 지향성을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발생하고, 그 본질은 무엇일까?

종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인간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서 불안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세계를 향한 믿음으로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종교의 본질은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지닌다. 내용적 측면에서 종교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관한 체험과 믿음을 포함한다. 독일의 신학자 오토는 종교를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이라고 정의하며,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직관과 감정, 체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 종교는 경전과 교리, 의례와 형식, 그리고 교단을 포함한다. 종교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절대자에 대한 설명과 체계를 바탕으로 종교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예배, 미사, 법회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의식과 제의를 통하여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교류하고자 한다.

이렇게 종교가 초월적인 세계, 궁극적인 존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윤리는 차이가 있다. 윤리는 인간의 이성, 상식, 양심에 근거하여 현실 세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판단과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05

하지만 종교와 윤리는 도덕성을 증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건전한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계율과 덕목을 증시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자비를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이슬람교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종교와 윤리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종교는 윤리적 삶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윤리는 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종교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성의 계승, 경전과 교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교 내부의 종파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유혈 사태로까지 번져 많은 살상자를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다. 종교는 대체로 강력한 세계관과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맹신하고 타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때문이다. 타 종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종교적 지식에만 근거해 타 종교를 판단하므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은 폭력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 및 존엄성을 해치고 평화로운 삶을 위협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 종교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과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종교 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으로 이어진다.

종교 간의 대화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스위스의 신학자 쾨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될 때에만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류 사회 시민들과 동일한 언어로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켜 이민자 집단을 동화시켜야 한다.

을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도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의 법적 제도를 보장하면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 ① 갑 : 주류 문화와의 융합을 위해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② 갑 : 사회권 보장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 ③ 을 :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요구 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7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을 :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갑 :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 ② 갑 :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③ 을 :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을 :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78.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공용어와 공통의 문화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아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된다.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관행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시민권은 보장되 관습과 신앙 및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에 증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 (후략).

- ①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국가적 유대감이 증진됨을 유념해야 한다.
-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④ 동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통합 실행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 ⑤ 이주민의 삶의 양식 변화가 그들의 시민권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79.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보 기 >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어 있다.
-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8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체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18.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지역 갈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갈등은 철도, 공항, 산업 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이나 투자를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의 과정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대 갈등을 들 수 있다. 세대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늘날에는 일자리나 노인 부양 문제 등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념 갈등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이념의 차이를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할 경우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념 갈등의 예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

사회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사회 현상에 관한 생각이나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만을 절대시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무시한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다. 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는 물론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사회 갈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사회 통합이란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 갈등이 만연하여 충돌과 대립이 일상화되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되어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또한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갈등은 사회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여 결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갈등에 따른 사회 분열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해쳐 국가적 어려움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용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

려고 노력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법제화하여 이해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복지 정책 등을 확대하여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이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서로 간의 신뢰와 연대감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는 통제와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지만, 이를 두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담론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 소통과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과 담론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결정과 일방적 통보로 운영되는 사회는 불만과 갈등을 초래한다.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진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소통과 담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소통과 담론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소통과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윌 듀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서 어느 누구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화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 존중의 윤리는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철학자 아펠은 '인격의 상호 인정'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신라의 승려 원효가 주장한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화쟁(和諍) 사상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진실한 대화에 힘써야 한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상호 간 이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거나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에 근거하여 거짓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맹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그릇된 언사로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제시하였으며,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바른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만일 자신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거짓으로 간주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인간이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심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의사 소통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82. 다음 사상가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대화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참여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요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 감정, 바람 등을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 ①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 ③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⑤ 개인적인 욕구, 희망 사항을 제외하고 발언해야 한다.

8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이성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과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소수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람의 주장은 상호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공적 담론의 장(場)을 통해 자신을 입증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 ① 신이 인간 본성에 부여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한다.
- ② 다수에 의한 합의보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결정을 중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정당화 근거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 ④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의존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공론의 장에서 상호 비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을 강조한다.

8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8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 19. 민족 통합의 윤리

반세기여 넘도록 분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통일에 관한 찬성과 반대 문제가 있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 민족의 번영과 발전, 평화 실현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 혼란에 대한 두려움,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통일에 관한 찬반 근거 중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문제이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했으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적지 않은 통일 비용이 들 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일을 찬성하는 논거 중의 하나는 통일이 분단 비용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분단 비용이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군사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남북한 모두 인구 및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이 지출하는 막대한 군사비는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게 한다.

이처럼 분단 비용은 분단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다양한 통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편익은 통일에 따른 보상과 혜택으로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 편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분단에 따른 남북한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통일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족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통일은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과 결합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해양과 대륙의 요충지에 있는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교통,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통일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는 물론 지구촌 평화의 실현에도 이바지한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 번영과 평화가 조화를 이룬 나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통일에 관해 무관심한 태도나 맹목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 통일 한국은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통일 한국은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체제 운영을 위해 표현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남한도 과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국제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아동 권리 협약,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감시와 강압 통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남한도 과거보다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 한국은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며, 공정한 법적 절차 없이 부당한 처벌을 하기도 한다. 남한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분배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 한국은 평화, 자유, 인권, 정의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간에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위 자료는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포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동반자라는 양면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나와 상

관없는 일이라거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적인 통일 기반 조성은 물론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특정한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 비용 문제 등 통합과정의 어려움과 혼란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통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나 안보 문제가 결부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각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되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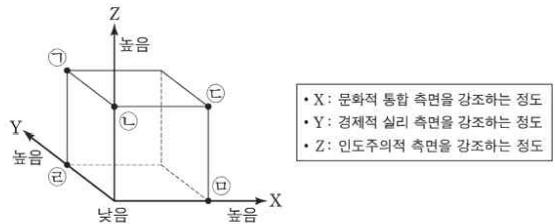
86.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87.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 (나) 통일 문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8.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8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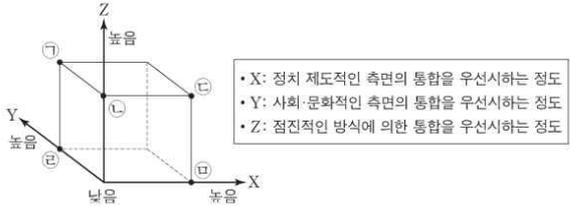
갑 :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  
 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  
 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  
 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  
 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 :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을 :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  
 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와 내정  
 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  
 구할 것입니다.

-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9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  
 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 지구촌 평화의 윤리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삶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  
 는 이상적인 삶이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국제 분쟁이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분쟁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 분쟁은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국가의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자 국민  
 생활의 터전이며, 자국의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  
 원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이 일어  
 나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 분쟁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종교 등을 포괄하는 문화는 공동체의 중심점이자 집단  
 정체성의 토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타협이나 제삼자의 중재  
 가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면 쉽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분쟁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낳는  
 다.

먼저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한다. 국제 분쟁은 국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  
 려는 과정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개발하여 지구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평화를 위협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훼손한다. 국제 분쟁은 종교나  
 민족 갈등과 결부되면 상호 간 적대감을 증폭하여 집단 살해,  
 인종 청소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제 분쟁은 평화, 인권, 정의 등의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지구촌 구성원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칸트는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환대권을 강조하고 있다.  
 환대권이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자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목자도 ‘자국을 사랑하듯이 타국을 사랑하라.’라는 겸  
 애(兼愛) 사상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  
 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이  
 해관계가 상충하는 지구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호 존중과  
 관용의 자세는 분쟁의 예방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전범 재  
 판소가 있었지만, 이는 임시로 운영되는 기구였다. 국제 사회  
 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반인도적 범죄  
 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  
 하고 지구촌에 형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분쟁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분쟁  
 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여 화해와 중재를 실천하고, 갈등 당사국은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분쟁 과

정에서 생겨나는 인종 청소,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 침해 사태는 인류 전체의 비극이자 지구촌의 평화를 크게 훼손한다. 국제 사회는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 활동과 같이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여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이웃들이 분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며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경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개발 도상국의 일자리 증가 등 인류의 공동 번영과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빈부 격차와 절대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가 간 빈부 격차와 절대 빈곤에 따른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인간다운 삶을 어렵게 만든다. 절대 빈곤에 따른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생명마저 위협받기도 한다.

또한 지구촌 분배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선진국들의 생산 기지와 시장으로 전락한 가난한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남북문제와 같은 지구촌 분배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해외 원조를 통해 지구촌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원조를 통해 그들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질서 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되어 정치적 전통법, 규범 등의 문화가 적정한 수준에 이른 사회를 말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 된다.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원조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 빈곤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후원과 기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때 원조를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배려하는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으로는 해외 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ODA) 등과 같은 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를 다할 때 국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9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 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① (가) :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나) :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④ (나) :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⑤ (가), (나) :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9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냉전 이후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집단, 인접 국가, 핵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명 충돌은 종교와 같은 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을 : 문명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다. 문명 간의 개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문명 충돌이 아닌 문명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① 갑은 동일 문명권의 국가들이 핵심국을 중심으로 결속한다고 본다.
- ② 갑은 평화를 위해 문명 간에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문명의 발전은 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분쟁의 원인이 문명의 이질성에, 을은 소통 단절에 있다고 본다.

9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9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9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6	①	7	③	8	①	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②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③	23	①	24	⑤	25	④
26	④	27	③	28	③	29	④	30	⑤
31	⑤	32	⑤	33	①	34	⑤	35	④
36	⑤	37	②	38	②	39	⑤	40	①
41	④	42	③	43	④	44	⑤	45	⑤
46	④	47	④	48	②	49	①	50	⑤
51	④	52	③	53	⑤	54	①	55	③
56	④	57	③	58	④	59	②	60	③
61	⑤	62	②	63	①	64	①	65	③
66	⑤	67	①	68	④	69	④	70	③
71	④	72	③	73	②	74	②	75	②
76	④	77	⑤	78	③	79	①	80	②
81	⑤	82	⑤	83	③	84	⑤	85	④
86	②	87	④	88	⑤	89	③	90	①
91	④	92	④	93	③	94	①	95	④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나와 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인간과 윤리 사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상가가 이 질문을 고민해 왔고, 오늘날에도 ‘인간 존재의 특성’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다.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선, 인간은 고도의 사고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며 조정한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가는 서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려면 자신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매킨타이어가 대표적 사상가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 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이며,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적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언어나 제도뿐 아니라 지식, 가치, 삶의 양식 등 인간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 나가는 **문화적 존재**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에 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러한 윤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선(善)을 파악하는 능력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이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마음 읽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음 읽기 능력은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을 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준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고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윤리적 삶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인간다움을 실현해 나갈 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인간 본성에 대한 대표적 관점인 **성선설(性善說)**, **성악설(性惡說)**, **성무**

**선악설(性無善惡說)**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한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제어하고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교육 등 후천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며 그에 따른 인간다움의 실현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모두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펼쳐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뇌 과학이나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욕구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역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보다 인간답고 바람직한 삶,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면, 어떠한 관점 탐구와 성찰 인간과 동물의 차이이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리성이 인간 본질의 핵심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 없이 성찰하고 노력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리 사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답으로서, 바람직하고 좋은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때 윤리 사상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우리가 자아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논의를 전개한 윤리 사상들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삶의 목적 및 가치 체계를 제공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일정한

가치 체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존재이다. 올바른 삶의 가치와 최선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탄생한 다양한 윤리 사상은 삶을 이끌어 주는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강조한 ‘인간다움 [仁] 의 실현’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 등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도덕적 행동 지침 및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던 칸트의 윤리 사상을 행동의 지침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 등 세분화된 윤리 사상은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직면하게 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윤리 사상의 도움을 받으며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자기 나름의 답을 해 볼 수 있다. 또 이를 자신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사회사상**은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사회 체제나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및 그것의 구현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회사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사상은 모든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인 **이상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사회사상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유, 평등, 정의, 행복 등을 보장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 준다.

둘째, 사회사상은 **현 사회의 진단과 평가**에 도움을 준다. 사회사상은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시민의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는 사회사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공적 삶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윤리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빈부 격차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까? 혹시 부자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까? 혹시 부자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할까? 사회사상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인종을 차별하는 인도인 등록 법령에 대해 불복종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나는 인도의 한 시민으로서, 또한 양심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폭력을 통해 정의(正義)를 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처벌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중죄인이 되어 명예를 얻고자 할 것이다.

- ①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 ② 유희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존재이다.
- ④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초월적 신을 믿음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놀이하는 것이다. 놀이가 동물에게 식욕과 성욕 등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라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이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삶을 재충전한다. 따라서 놀이는 단순히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 ① 우주 만물의 순리에 따른 운명적 삶을 지향한다.
- ② 자연을 이용하여 불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한다.
- ③ 초월자에게 귀의하여 내세의 평안한 삶을 도모한다.
- ④ 다양한 유희적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 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반성하는 삶을 실천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과 불은 생명이 없고, 초목은 생명이 있어도 지각(知覺)이 없으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도의(道義)가 없다. 소는 인간보다 힘이 세고, 말은 인간보다 달리기를 잘하는데, 소나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들은 능히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능히 모여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도의가 없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ㄴ.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ㄷ.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ㄹ.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옛 성현은 매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사귀어 있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② 반성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③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존재이다.  
④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⑤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 귀의(歸依)하는 존재이다.

2.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농경은 집단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가족을 기초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윤리에 주목하였다.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의 윤리를 정립하려는 논의도 전개하였다. 또한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한 유교 윤리, 불교 윤리, 도가, 도교 윤리는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이자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삼교(三敎)라고 불리는 유, 불, 도 사상은 각기 구별되는 윤리 사상을 제시하며 동양의 사유 체계를 이끌었다. 특히 이들 사상은 각각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자(孔子)로부터 비롯된 유교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해 인간이 지닌 도덕성에 주목하였으며,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교에서 인간은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수양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된 불교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을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자비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는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비의 윤리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와 장자가 체계화한 도가는 우주의 근원을 도(道)로 규정하고,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무위자연의 삶을 제시하였다. 도가에서 바라본 인간은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인위적 가치와 제도는 인간 본래의 본성을 흐린다. 그래서 도가는 자연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소규모의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도가 윤리 사상은 이후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도교 윤리 사상으로 전개되었으며, 도가, 도교의 윤리 사상은 일반 민중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동양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유, 불, 도로 대표되는 동양 윤리 사상은 각각의 고유한 사유 체계를 제시하며 전개되었다. 그러면 동양 윤리 사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동양 윤리 사상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도

가, 도교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다.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 도가, 도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소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동양 윤리 사상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행복과 사회 질서의 실현 원리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에도 현재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지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 윤리 사상은 우리가 수천 년간 형성해 온 고유한 사유 체계이자 역사적 전환기마다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이룩한 지적, 윤리적 자산이다.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무속(巫俗) 신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윤리 의식의 바탕이 되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숭배 [敬天] 사상과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天人合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는 하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하늘을 비롯한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생각은 무속 신앙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무속 신앙은 하늘과 인간을 매개한다고 믿어지는 무당의 힘을 빌려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믿음으로, 고대인들의 사유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굿을 통해 하늘의 도움을 얻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었다. 또한 집단 굿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울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은 서로 사랑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었으며, 이는 유, 불, 도 삼교로 대표되는 외래 사상을 우리 땅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에서 한국 윤리 사상과 관련한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사유 방식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유 방식은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을까?

먼저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기를,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무속 신앙은 개인의 안녕과 인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본주의 정신은 이후 인간을 존중하고 존엄히 여기는 사상으로 계승, 발전하였으며, 이는 한국 유교의 민본주의,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홍익인간의 정신,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한 무속 신앙 등은 사람들의 좋은 삶을 염원한 현세 지향적 가치관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세

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민간 신앙으로 계승되었다. 도덕적인 인간과 사회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한국 유교의 전통에서도 현세 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환웅과 웅녀의 결합, 하늘과 인간의 합일을 염원하는 무속 신앙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화합과 조화의 정신은 불교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화해시키고자 했던 원효의 사상, 교종과 선종의 화해를 주도한 의천과 지눌의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한국 유교는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동학을 비롯한 근대 신흥 종교들도 유, 불, 도 사상을 융합하여 조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도덕적 삶의 강조**를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평화 애호 정신, 그리고 유, 불, 도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실현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던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은 도덕적 삶에 대한 염원을 보여 준다. 특히 한국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삶과 관련하여 인격의 완성을 위한 방안을 깊이 탐구하였다.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던 유교 사상의 전통,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 한국 불교 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적 특징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큰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 욕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환경 문제 등은 화합과 조화의 정신, 도덕적 삶의 강조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윤리 사상을 통해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5.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서(醫書)에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을 ‘몸이 불인(不仁)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손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인일 것이다.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천지는 한 몸이고 천지 사이의 만물은 자신의 몸과 같다. 무릇 사람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 ①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 ② 의술(醫術)을 행하여 자기 몸의 건강을 보전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사회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를 강조한다.
- ④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고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다.
- ⑤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

6. 다음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하늘이 명령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

- ① 예의(禮義)로써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② 존비친소의 구분 없이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 ③ 집착에서 벗어나 중생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 ④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 ⑤ 외물(外物)에 의지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3. 인의 윤리

중국 고대 왕조인 주(周) 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기존의 사회 제도가 무너지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제자백가(諸子百家)이다. 대표적으로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등을 들 수 있다.

유교 사상은 공자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는 중국의 상고 시대에 해당하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하여 유교 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공자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仁)은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한 인은 사랑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공자는 인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효제(孝悌)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忠恕)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서’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推己及人)이다.

공자는 인(仁)과 더불어 예(禮)를 강조하였다.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예는 외면적 규범을 의미한다. 공자는 당시의 예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보고, 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을 군자(君子)라고 일컬었다. 또한 인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의 회복은 무엇보다 개인의 주체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한편 공자는 정명(正名)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정명은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통치자는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춘추 시대를 지나 전국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맹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하고 같은 도덕적 타락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파악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仁)과 의(義)를 강조하였다. ‘인’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면

‘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말한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 (性善說)** 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 [不哀之心] 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羞惡之心] ,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辭讓之心] ,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 [是非之心] 등의 네 가지 마음, 즉 **사단 (四端)** 이 그것이다. 그는 사단이 선천적임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 마음인 사단은 어린싹과 같은 실마리, 곧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 (良知)** 와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 (良能)** 을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르며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맹자는 수양을 통해 사단을 확충할 때 **인의예지 (仁義禮智)** 라는 **사덕 (四德)** 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고 [求放心] 욕심을 적게 가질 것 [寡欲] 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집의 (集義)** 를 통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을곧은 도덕적 기개인 **호연지기 (浩然之氣)** 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호연지기를 갖출 때 **대장부 (大丈夫)** 또는 **대인 (大人)** 이라 하는 이상적 인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정치도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인’에 기초한 **왕도 (王道)**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하는 **민본주의 (民本主義)** 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 (霸道)** 를 비판하고, 백성을 저버린 군주는 교체되어야 한다 [易姓革命] 는 **민본주의적 혁명론**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항산 (恒産)** 이 있어야 **항심 (恒心)** 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는 백성들이 도덕적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되던 전국 시대 말에 이르러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도덕의 근원을 하늘과 결부하여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순자는 자연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 [天人分二] 는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性惡說)** 을 주장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인의 (仁義) 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자는 성인 (聖人) 에 의해 제정된 **인위 (人爲)** 로서의 **예 (禮)** 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化性起僞] 고 주장하였다. 순자에게 있어서 ‘예’란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규제하는 외면적인 도덕 규범을 뜻한다.

순자는 예를 도덕규범의 근거이자 통치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여, 예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예치 (禮治)** 를 강조하였다. 또한 덕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야 하며,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순자는 군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규범인 ‘예’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 맹자, 순자 등 선진 (先秦) 유교 윤리 사상가들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유교 사상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인간성 상실과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가는 데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진 (秦) 나라는 법가 (法家) 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분서갱유를 통해 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을 통제하여 유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 (漢) 나라에 이르러 유학은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다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의 유학은 경전을 체계화하는 **경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경전의 해석과 관련하여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도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학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유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송 (宋) 대에 이르러 마련되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불교와 도가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리학 (性理學)** 을 정립하였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 (理)’라는 성즉리 (性即理) 를 주장하였다. ‘성즉리’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우주 자연의 이치와 연결지어 규정한 것으로, 성즉리에 대한 강조는 도덕 실천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주희는 이기론 (理氣論) 과 심성론 (心性論) 을 통해 도덕 행위의 근거와 원리를 탐구하고, 수양론 (修養論) 과 경세론 (經世論) 을 통해 도덕 법칙의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이기론**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희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 (理) 와 기 (氣) 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이자 도덕 법칙이며, ‘기’는 ‘이’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이다. 주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理氣不相離] 고 보았다. 동시에 원리로서의 이와 재료로서의 기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뒤섞일 수 없다 [理氣不相雜] 고 보았다.

**심성론**은 도덕 행위의 근거와 실천 이론을 해명한 것으로 주희는 이기론을 그 근거로 삼았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래부터 그러한 성품, 즉 **본연지성 (本然之性)** 이라 칭하면서,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전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주희에 따르면 만물이 ‘이’와 ‘기’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도 현실에

서 변화하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 이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우리 성의 다른 두 측면일 뿐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질지성은 선악이 혼재하므로, 도덕적으로 행위하려면 기질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과 욕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주장이다.

수양론은 도덕 실천의 구체적 방안을 논한 것이다. 심성론을 바탕으로 감정과 욕구의 조절을 강조하던 주희는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덕 본성을 잘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것 [存天理去人欲]’을 강조하였다. 또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갈 것 [格物致知], 양심을 보존하여 본성을 함양하고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필 것 [存養省察], 항상 마음을 경건하게 할 것 [居敬] 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주희는 도덕 법칙의 탐구와 더불어 도덕 실천이 중요함을 주장하면서, 지(知)와 행(行)이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해 나아간다는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제시하였다.

경세론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주희는 개인의 도덕 실천을 바탕으로 도덕적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의 유교 전통을 계승하여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이념 아래 덕치(德治)와 예치(禮治)를 구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부패한 현실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의 도덕성과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명(明)대에 이르러 왕수인은 욕구연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여 양명학(陽明學)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도덕 원리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 [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덕 법칙은 마음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함으로써만 드러난다고 보고 도 5덕 주체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보아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왕수인은 이처럼 우리 마음에 이미 도덕 법칙이 내재하며, 이는 곧 도덕 판단과 실천의 근거임을 강조하면서, 치양지(致良知)를 주장하였다. 치양지는 마음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양지(良知)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서,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양지를 강조하던 왕수인의 입장은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희가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격물치지를 설명하던 것과 달리, 왕수인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자기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을 격물치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왕수인은 양지를 실현하는 데 사사로운 욕망이 방해가 된다고 보고, 사욕을 극복하여 순선한 마음을 유지 [存支理去欲]한다면 누구나 지선(至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왕수인은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

성이다.”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앎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희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은 선진(先秦)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자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성리학과 양명학은 도덕의 근거가 어디에 존재하며 그 탐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달랐으나, 도덕 법칙에 대한 앎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와 같은 실천 지향의 태도는 오늘날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仁)이란 무엇일까요? 인은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모두 어질게 될 것이니, 인의 실천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
-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고 한다네. 반면 배울 수 있고 애쓰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僞]라고 하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性僞之分]이라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라네. ... (후략).

- ①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 [求放心]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齊物] 한다.

9.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예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자포(自暴)] 자이고, 자신이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자기(自棄)] 자이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치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을 :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성품[性]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이익이 의로움을 이기면 난세가 되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누었다. 사(士) 이상의 계층이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백성과 생업을 경쟁하지 않으니, 백성이 재물에 궁핍하지 않게 되었다.

— < 보 기 > —

ㄱ. 갑은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ㄴ. 갑은 인의가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을은 군주가 예로 다스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을은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나의 앎을 다하고자 함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치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야 한다.

을 : 만약 ‘격물’을 ‘천하 만물 모두를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천하의 만물을 어떻게 다 연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초목에 대하여 연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격’은 ‘바로잡는다[正]’의 뜻으로, ‘물’은 ‘일[事]’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 ① 갑 :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 ② 갑 :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물[事]도 없다.
- ④ 을 :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다.
- ⑤ 갑, 을 :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해야 이상적 인간이 된다.

11.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위로는 무극과 태극에서, 아래로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理)가 있다. 사물 하나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 한 가지를 빠뜨린다. 모름지기 한 가지를 따라가서 다른 이(理)와 만나야 한다.

을 :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心]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뜻[意]이다. 뜻의 본체가 곧 앎[知]이며, 뜻이 머무는 것이 곧 사물[物]이다. 만약 뜻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사물이니, 그것은 마음에 있다.

- ① 갑은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도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기(氣)로 이루어진 본연지성을 이(理)가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마음 밖에 사물이 있으므로 이(理)도 마음 밖에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과 예의로 양지(良知)를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마음[心]과 이치[理]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마음이요, 실제적인 것은 성(性)이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곧 깨닫고 느끼는 주체이다.

을 : 마음의 본체[體]는 성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치가 있겠으며, 이치 바깥에 마음이 있겠는가?

— < 보 기 > —

ㄱ.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ㄴ. 성(性)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ㄷ.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

ㄹ. 격물치지는 천리의 보존[存天理]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도덕적 심성

삼국 시대에 유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교의 도덕규범을 받아들였고, 유교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원(元) 나라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여 자연과 인간을 탐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건국된 조선에서 성리학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기 수양과 사회적 실천에 더욱 주목하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성리학은 사단 칠정(四端七情)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과 감정 및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는 심성론(心性論)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황과 이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황은 세계와 인간 심성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을 기초로 도덕 본성의 실재 및 발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황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희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理氣不相離] 동시에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理氣不相雜]고 하였다. 이황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와 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황은 가치론의 입장에서 '기'보다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를 기보다 우위에 두는 이귀기천(理貴氣賤)의 입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황은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서 순선무악(純善無惡)하다. 반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서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악(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氣發而理乘之]."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정립하였다.

이황이 '이'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에게는 도덕 행위의 근거인 도덕 본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발현도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새싹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선한 도덕 본성인 '이'의 발현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상의 확립과 사회 질서의 수립은 도덕 본성의 능동적 실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황은 도덕 본성의 실현과 관련한 수양의 태도로 일종의 도덕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 경(敬)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整齊嚴肅], 항상 또렷이 깨어 있는 것 [常惺惺] 등을 강조하였다. '경'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막고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황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이이도 인간의

도덕 본성과 도덕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다. 그는 도덕 실천과 관련하여 일반 감정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이황과 구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理氣不相離]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발(發)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다."라는 그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理通] 반면,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 [氣局]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통기국을 바탕으로 선의 원리인 '이'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는 국한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에 따라 사단 칠정에 대하여 이황과는 구분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사단을 료합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 [氣發理乘]'이다. 그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며, '이'는 기가 발하는 근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이는 이처럼 '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기'의 발동만을 인정함으로써, 칠정이라는 인간의 일반 감정이 도덕 본성에 근거함을 주장하였다. 또 악(惡)의 발생과 같은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한정 짓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의 실현은 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 감정의 조절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이는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교기질(橋氣質)의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기질을 바로잡는 일의 핵심은 극기(完己)에 있다. 극기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가 맑고 깨끗해져서 '이'의 본래 모습, 즉 선한 도덕 본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이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운 욕망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진실한 '이(理)'이자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의 자세를 몸가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마음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한편, 이이는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무실과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혁론인 경장을 주장하였다. 당시를 위기로 규정한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덕과 더불어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훗날 실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 이후 조선 사회는 혼란이 거듭되었다. 유학자들은 예(禮)의 강화를 통해 혼란한 질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당시 사변화된

성리학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실천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실학(實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적 모색이었다. 성리학이 대체로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집중하였다면, 실학자들은 현실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민생의 구제와 국부의 증대를 목표로 사회 개혁론에 주목하고 위정자를 비롯한 지배 계급의 윤리적 건전성 회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실학은 성리학과는 다소 구별되는 인간관과 윤리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정약용의 사상이다. **정약용**은 조선 성리학의 주된 주제였던 도덕 본성 및 실천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성리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실학이 체계화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우주 자연의 원리, 즉 이(理)이다. 즉 이는 우주 자연의 원리이자 궁극적 실체이며, 동시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법적(理法的) 실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성즉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이법적 실체로서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적 입장 대신 인간의 본성은 일종의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性嗜好)**라는 주장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고자 하였다. 그가 말하는 기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형구(形器)의 기호**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기호와, 비록 선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생리적 기호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약용은 인간을 선택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즉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과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을 따르기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고, 악을 따르기란 언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쉽다."라는 말로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성리학의 엄격한 금욕주의적 수양론에서 벗어나 욕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생존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하고, 평등하게 욕구를 발현하여 충족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인간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정약용의 사상은 근대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13.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자 :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사단과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사단을 겸(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修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승 : 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立志] 하네. 그 다음은 수렴(收斂)인데, 이것의 핵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敬)을 지니는 것이라네. 수렴 다음에는 궁리(窮理)와 성실(誠實)에 힘쓰고 기질을 바로잡아야[矯氣質] 하네.

< 보기 >

- ㄱ.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 ㄴ.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矯] 하는가?
- ㄷ. 경을 지니는 것[持敬]은 궁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ㄹ.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성(誠)에 이를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게  
 갑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기(氣)이며 측은의 근본은 인(仁)이라 하였고, 발(發)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理)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현상으로부터 본원(本源)을 본 것입니다. 한편 을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기질과 섞어 말하지 않았고, 사단(四端)을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본원으로부터 다양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본다.
- ② 갑은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되는 선한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이와 기는 각각 발할 수 있지만 함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은 본성이지만 칠정은 감정이라고 본다.

[15~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다. 같음 속에 다름이 있으니,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칠정은 기(氣)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을 : 사단은 기가 발(發)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氣發)이며, 측은의 본(本)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승(理乘)이다.

15.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사단의 정(情)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  
 ㄴ.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理)인가?  
 ㄷ.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 정인가?  
 ㄹ.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알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緒]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17~1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邊)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반드시 기(氣)의 기를 타야 움직이는[動] 것이니,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理)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을 :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兼)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7.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것임을 모르고 있다.  
 ㄴ.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ㄹ.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갑, 을과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심(四心)이 바로 사단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측은(惻隱)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仁)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 ① 사덕은 천리가 아니며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인가?
- ③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性]에 내재하는 선한 것인가?
- ④ 사단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心]이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 ⑤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 5. 자비의 윤리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는 전통의 브라만교가 그 권위를 상실해 가는 가운데, 육사외도와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싯다르타는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며 불교를 창시하였다.

싯다르타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한 이후 6년여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佛, Buddha), 즉 석가모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펼치기 위해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불교는 교조인 부처[佛], 그가 깨닫고 설법한 진리[法], 출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행 공동체[僧]를 갖춘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연기설(緣起說), 사성제(四聖諦), 삼법인(三法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기설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연기란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연기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본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인생과 우주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연기설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멸하는 길을 밝힌 것으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고성제(苦聖諦)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판단이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고통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집성제(集聖諦)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을 겪는다고 본다.

멸성제(滅聖諦)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인 열반의 경지, 즉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도성제(道聖諦)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밝힌 진리이다.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의 또 다른 가르침인 삼법인은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며, 열반적정 대신 일체개고(一切智苦)를 꼽기도 한다.

제행무상은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법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른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며, 자아[我]역

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열반적정은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체개고는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집착함으로써 탐욕[食],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에 빠져 고통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 정, 해, 삼학을 제시하였으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겨 모든 사람에게 자비(慈悲)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그의 가르침은 한동안 제자들에게 의해 구두로 전승되었다. 이후 경전 편찬을 통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불교가 부파불교(部派佛敎)이다.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파 불교의 특징은 부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아라한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파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교리를 강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대승 불교(大乘佛敎)이다.

대승 불교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방안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대승 불교의 교리는 공(空)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공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철저히 논한 중관(中觀) 사상과 이를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唯識) 사상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양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관 사상은 공 사상을 확립한 용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은 고정불변하는 유(有)나 아무것도 없는 무(無)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이러한 용수의 사상에 따라 중도를 잘 관찰하는 일 즉 중관(中觀)을 중시하였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식 사상은 공 사상이 지나치게 공허한 사상으로 치우쳐 간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유식 사상도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중관 사상과 달리, 유식 사상은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推識)을 강조하고,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推心造)를 주장하였다. 유식 사상은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교종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불교는 대승 불교의 이론적 체계가 구축되면서 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인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이론에 치우치면서 대중과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전파되어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를 그들에게 친숙한 도가 사상의 개념을 빌려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불교 이해 방법을 격의 불교(格義佛敎)라고 한다.

이후 중국 불교는 다양한 불경 번역을 통해 격의 불교에서 벗어나 불교를 새롭게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한 경전의 이론에 입각한 여러 종파가 형성되었는데, 이처럼 경전의 교리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 종파를 교종(敎宗)이라고 한다. 교종의 대표적 종파로는 천태종과 화엄종을 들 수 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에 해당하는 교(敎)와 실천에 해당하는 관(觀)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는 교관이문(敎觀二門)을 주장하였다.

화엄종은 『화엄경』에 의거하여 우주 만물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된다고 보는 무진연기(無盡緣起)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든 것은 서로 차별함 없이 하나이며, 분별과 대립은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종은 이처럼 경전 이해에 기초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위한 실천 수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정토종은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교종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그 해석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면, 선종(禪宗)은 부처의 마음에 주목하고 그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종은 인도 불교에서 기원하였으나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혜능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선종에서는 불교의 진리, 곧 법(法)이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는 것 [以心傳心]이므로, 따로 언어와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 데 [不立文字]에 참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교설 이외에 따로 전하는 것 [敎外別傳], 즉 부처의

마음이 있으니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心性)을 도야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선종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見性成佛], 자신의 마음속의 불성(佛性)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 [見性成佛]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선종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본성을 보면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즉각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돈오(頓語)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종에서는 불성에 대한 직관을 중시하였기에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즉 선(禪)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좌선을 주요한 수행 방법으로 하면서 화두를 통해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다.

19.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 < 보 기 > —

ㄱ.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ㄴ. 멸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ㄷ.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ㄹ.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 < 보 기 > —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1.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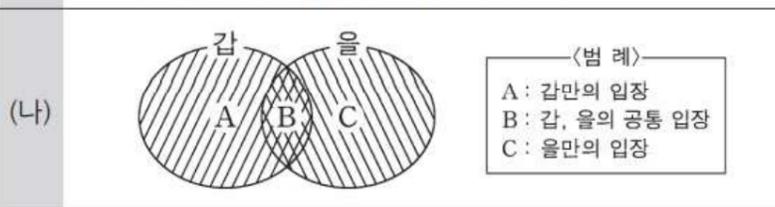
< 보 기 >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2.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마음의 바탕(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自性)의 계(戒)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定)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혜(慧)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頓悟] 문득 닦으면[頓修] 늦고 더듬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을 :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이(理)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



- < 보 기 >
- ㄱ. A : 오온(五蘊)으로 이뤄진 '나'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ㄴ. B :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ㄷ. B :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한다.
  - ㄹ. C :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苦],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道]을 말한다.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하고 참고 견디어 바른 생각과 바른 앎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① 욕망을 충족시켜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 ②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③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 ④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 ⑤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2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색(色)은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으리라.

- 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 고통 없는 경지[涅槃]로 나아가야 한다.
- ②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③ 고통을 없애려면 여덟 가지 수행 방법[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오온(五蘊)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연기(緣起)를 바르게 통찰하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6. 분쟁과 화합

한국 불교의 독자성은 원효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특정한 경전을 중심으로 다른 경전과 사상을 해석하는 중국 불교와 달리, 원효는 다양한 경전과 부처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독창적인 사상 체계를 전개하였다.

원효는 일체의 모든 이론은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론은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원효는 일심을 일체의 대립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면서, 일심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론이 생기지만, 이는 다시 일심으로 종합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일심에 바탕을 둔 원효의 사상은 다양한 이론과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색과 남색이 다르지만 그 바탕으로 보아서는 같으며, 얼음과 물은 그 형태로 보아 다르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파의 주장은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므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으로 정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논쟁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던 화쟁(和靜) 사상이다. 이는 당시 여럿으로 분화되어 대립 양상을 보이던 불교 이론과 종파를 통합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효는 독자적인 불교 이론의 제시와 더불어 실천적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그는 표주박에 ‘걸림이 없다.’라는 뜻의 무애(無碍)를 새기고 전국을 다니며, 불경을 읽지 못해도 염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는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일심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였던 자비의 실천이 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왕실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 신라 말에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교종과 더불어 선종이 함께 발전하였다. 선종은 깨달음은 경전의 이론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한다. 선종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종이 경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하였고,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의 마음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은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고려 초기부터 있었으며, 의천에 의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의천은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조화를 강조한 원효의 화쟁(和靜)을 높이 평가하고 계승하였다.

그는 교종을 주(主)로 하고 선종을 종(從)으로 하는 입장에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내외겸전(內外兼全)과 교관겸수(敎觀兼修)를 강조하였다. 내외겸전은 교종의 수양 방법과 선종의 수양 방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관겸수는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 후기에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선종과 교종에서 제시하는 궁극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지눌은 돈오점수(頓悟燕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의 합일을 꾀하였다.

돈오점수는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가는 수행법으로, ‘돈오’는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나’를 보는 것이 돈오이다. 하지만 돈오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혜쌍수는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지눌은 ‘정’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혼란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혜’는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보아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은 마음의 본체를, ‘혜’는 마음의 인식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려 하였던 의천과 지눌의 사상은 이후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5.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써 비추어 보아 법의 모습[法相]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을 :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 보 기 >  
ㄱ. 갑 : 단박에 깨닫기 위해 선(禪) 수행과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ㄴ. 을 : 참선(參禪) 수행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보살행이 필요 없다.  
ㄷ. 을 :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수심(修心)의 방법이다.  
ㄹ. 갑, 을 :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더라도[頓悟]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갓난 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기관[諸根]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근력을 충실하게 키워 내지 못하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 < 보 기 >
- ㄱ.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 ㄴ. 선종[禪]과 교종[敎]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동일하다.
  -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漸修] 나가야 한다.
  - ㄹ.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있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삼매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무념이다. 자성을 일거에 깨쳐야 한다.

을 :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진다. 정(定)이 없으면 미치광이요, 혜(慧)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부처가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갑은 경전 연구에 몰입해야 반야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여 교학(敎學)에도 힘써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점차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무위자연의 윤리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사상 가운데 유교 사상과 더불어 영향력이 큰 사상 중 하나는 도가(道家) 사상이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유교 사상이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에 주목하였던 것에 비해, 도가 사상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생명 보존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도가 사상은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의해 구체화되어 발전하였기에 노장사상(老莊思想)이라고도 한다.

노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 사회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인간은 본래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가지고 있으나,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도(道)에 따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으로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서의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어로 한정할 수 없고 실상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노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천지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고 보았다.

노자는 미추(美醜)나 선악(善惡)과 같은 현실의 가치는 "도에서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자는 이 세상에는 오직 상대적인 가치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자는 도(道)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덕(德)이라고 하였다. 그는 무위(無爲)의 덕을 따르는 것,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무위는 인위(人爲)를 가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위자연의 삶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노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살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이를 성인(聖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노자는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허정(虛靜)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허정은 마음에 내재한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비워 낸 본래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노자는 마치 더러워진 거울의 때를 닦는 것과 같이 무위와 무욕(無欲)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을 통해 백성들의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이자 백성들의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실현하는 정치이다. 그는 이러한 다스림이 실현된 이상 사회로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제시하고,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통일 제국에 반대하였다.

장자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감각과 마음을 통해 얻는 지식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편

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가 제시한 도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 만물 어디에나 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미나 썩정 이, 기왓장 속에도 도가 있고, 심지어 오물 더미에도 도가 깃 들어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만물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깨우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경지로 **제물(濟物)**과 **소요(通達)**를 제시하였다.

제물이란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제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善惡), 미추(美醜), 빈부(貧富)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

소요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의미로,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소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아간다.

장자는 제물과 소요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심재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이다.

장자가 제시한 제물과 소요의 경지는 도(道)를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로서, 장자는 이러한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일컬어 **성인(聖人)**, **지인(至人)**, **진인(真人)**, **천인(天人)**, **신인(神人)** 등으로 칭하였다.

**도교(道敎)**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과 결합하여 성립한 종교이다. 도교는 도가 사상 가운데 종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주요한 교리 체계를 구성하였다.

도가와 도교는 모두 우주 자연의 근원으로서의 도를 중심으로 그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도가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철학적 사상이었던 반면, 도교는 교단과 교리 체계를 갖추고 현세적인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면서 불로장생(不老長生)과 신선술을 믿은 종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는 한(漢)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한나라 초기에는 **황로학파(黃老學派)**가 등장하였다.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숭상한 황로학파는 도가를 바탕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의 사상을 수용하였고, 무위(無爲)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하였다.

한나라 말기에는 황로학파와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태평도(太平道)**가 등장하였다. 태평도는 교단을 갖추고 만인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태평(太平)시대를 현실 사회에 실현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하였다. 태평도는 복을 추구하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으나,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이후 교단이 몰락하고 말았다.

이후 등장한 **오두미교(五斗米敎)**는 조직화된 종교 집단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두미교는 노자를 신격화하여 교조로 받들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다. 오두미교에서는 교리를 믿고 규정된 규율과 의식을 따르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여 민간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도가 사상을 계승하여 종교로 발전시킨 태평도나 오두미교와 달리, 위진(魏晉)시대의 **현학자(玄學者)**들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다. 대표적인 현학자들을 흔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 부른다. 이들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청담(淸談) 사상**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는 도가,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삼국 시대부터 이미 도가, 도교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의 사상가 최치원은 「난랑비서문」에서 우리 고유의 사상인 풍류 사상에 이미 도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서 신선 사상과 같은 도교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학을 탄 신선의 모습이나,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도교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고유 사상에 깃든 도가, 도교적 요소는 중국으로부터 도가, 도교 사상이 전래된 이후 우리 땅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기존의 사상과 융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도교는 삼국 시대에는 주로 민간 신앙으로 나타났으나, 고려에 이르러서는 국가 의식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성행하여 종교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재초**라는 도교 제례가 중시되었는데, 재초는 삼국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조선 시대 초까지 명맥이 이어졌다. 재초를 통해 시행된 도교를 흔히 **과의(科儀) 도교**라고 한다.

과의 도교와 함께 신선 사상에 기초한 양생술도 수용되었다. 신선 사상의 영향에 따른 수련의 전통도 일찍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전통은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허준의 『동의보감』도 도교의 양생술에 영향을 받은 의학서이다.

이와 더불어 도가, 도교 사상은 우리 고유의 민간 신앙과 다양하게 융합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민간 신앙의 대상인 성황, 칠성, 조왕 등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성황당은 우리 고유의 산신(山神) 신앙과 도교의 성황 신앙이 결합한 것이다. 자연의 기운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 또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민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도가·도교 사상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 고유 사상과 결합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8.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숨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 < 보 기 > —
- ㄱ.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ㄴ.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 ㄷ.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 ㄹ.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慎獨)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④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3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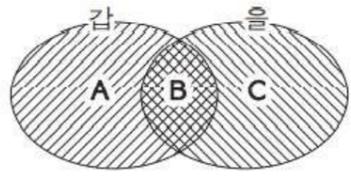
- < 보 기 > —
-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1.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갑 : 곱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을 :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른 후에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나)  — < 범례 > —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 ① A :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 ② A :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③ B :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C :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 ⑤ C : 향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32.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그림쇠는 동그라미, 곱자는 네모꼴, 떡줄은 곧음,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듯 예(禮)란 올바른 도(道)의 기준이다. 군자는 스승과 법도[師法]를 따르고 예의를 실천하는 자이며 소인은 본성을 좇아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이다.

을 :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쇠,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 직선을 긋는 떡줄을 빌어 사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해친다. 예악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仁義)를 좇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한다.

- ① 갑 : 예를 기준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② 갑 :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을 : 인의를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④ 을 :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본성을 해치는 예악을 거부해야 한다.
- ⑤ 갑, 을 : 성(性)을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樸]로 보아야 한다.

33.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樹木)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자연의 도(道)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을 : 선비[士]가 거쳐해야 할 곳은 인(仁)이며,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의(義)이다. 인에 거처하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다.

- ① 언어[言]로 도에 이를 수 있고 인위로 인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 ②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누구나 따라야 할 도가 존재하는가?
- ③ 도를 행하면 분별적 지식이 늘어나고 타고난 덕성이 함양되는가?
- ④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 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禮)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가?

8. 한국과 동양의 윤리 사상

한국의 전통 윤리 사상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한국 윤리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한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근대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농촌 경제의 파탄과 국가 재정의 위기,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성리학을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비판하면서 도덕의 실천과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학(實學)이 등장하였다. 실학은 17세기 중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18세기에 접어들어 성호학과와 북학과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리학과 구분되는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도덕관을 제시하였다. 실학자들 중 일부는 성리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도덕과 결부된 대상이 아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은 도덕규범과 실천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실학자들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고, 나아가서는 도덕규범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제정될 수도 있다는 도덕관을 제시하였다. 이는 천리(天理)를 도덕규범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던 성리학자들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실학자들은 우리의 역사, 지리, 문화, 군사, 언어, 풍속 등에 대한 독자적 탐구를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서 벗어난 자주적 학문의 개척이었다.

이러한 실학의 정신은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근대 지향적인 개혁 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토지 개혁, 상공업 진흥, 신분제 개혁 등 진일보한 민본주의적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개화사상가들에게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양명학은 한동안 주요 성리학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양명학적 흐름을 주도한 정제두(鄭齊斗, 1649~1736)는 왕수인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이룸으로써 강화학과(江華學派)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

정제두의 학문을 계승한 강화학과는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 성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참된 자아에 대한 각성과 생활 속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특히 인식 주체로서의 '나'가 바로 도덕 문제의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참다운 마음의 이치를 알고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화학과는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도교와 불교까지 수용하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하였으며, 실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의 자주성을 주장한 강화학파 학자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들의 정신과 사상은 국학 진흥에 힘썼던 정인보(鄭黃普, 1893~1950) 등에게로 이어졌으며 여러 민족주의 학자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실학자들과 강화학파의 사상가들은 실천 지향적이고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몰락한 양반의 후예이거나 말단 관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사상이 현실에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세기 조선은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과 민란(民亂)이 끊이지 않았으며, 서양 문물의 유입과 서양의 통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통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의 사상가들은 한국 전통 윤리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거나 서양 학문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서구 열강의 침략 상황에서 유교적 인륜과 의리 정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이항로와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들 수 있다. 이항로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위정척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기정진 역시 상소문을 통해 “그들이 가진 끝없는 탐욕은 우리의 백성을 금수(食獸)와 같이 만들 것입니다. 만약 통상의 길이 한번 열리면 2, 3년 안에 서양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정척사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의식과 절의를 강조하는 선비 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훗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개화사상(開化思想)**은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던 사상이다. 개화사상은 유교적 질서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급진적 개화론과 온건적 개화론으로 나누어 진다.

**급진적 개화론**은 전제 군주제와 신분 질서로 대표되는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급진적 개화론자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도리를 부여받았다고 보고, 그것은 생명을 보전하며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주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건적 개화론**은 유교적 질서 [東道]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 기술 [西器]을 수용하자는 주장으로서,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이라고도 한다. 온건적 개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여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라는 주장에 잘 담겨 있다.

개화사상은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사회 개혁을 도모하는 근대 지향적인 사상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東學)**은 봉건 체제가 동요하고 천주교가 확산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다. 동학은 **보국안민**을 목표로 경천(敬天) 사상의 바탕 위에 유, 불, 도 사상을 융합하여 성립하였다.

동학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학에서 제시한 ‘내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侍天主]’,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吾心即汝心]’,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 [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 [人乃天]이다.’ 등의 가르침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동학에서는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여, 신분 차별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다. 동학의 사상은 훗날 신문화 운동과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 시기 성립한 또 다른 근대 신흥 종교인 증산교와 원불교 역시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대 신흥 종교들은 궁핍과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을 제공하였다.

조선 후기로부터 근대 격변기에 등장한 다양한 사상과 개혁 방안은 대부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의식과 국권 수호 정신으로 승화되어 민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동양의 다양한 윤리 사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은 오늘날 도덕성의 상실, 황금 만능주의의 팽배, 사회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 앞에 놓인 현대인에게 많은 윤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 보살, 지인은 모두 초월적 존재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다. 따라서 우리도 부단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 실현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신적,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군자,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지인, 진인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상을 추구해 나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군자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과 보살의 자비심, 지인, 진인의 만물제동을 실천하는 삶은 모두 생명 존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지향하도록 돕는다. 군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며, 보살은 중도(中道)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지인, 진인의 삶 역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조화로운 삶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처럼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은 자아를 완성하고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과 가치의 원천을 제공한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겨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양이(洋夷)들이 사학(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양적(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해야 한다.

을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하늘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 < 보 기 > —
- ㄱ. 갑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의 수용을 주장한다.
  - ㄴ. 갑은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器)가 둘이 아님을 주장한다.
  - ㄷ. 을은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 만민 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효제(孝悌) 정신의 계승과 국난의 극복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冤)과 한(恨)이 쌓여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우겠다.

을 :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 보 기 > —
- ㄱ.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冤)을 강조한다.
  - ㄴ.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벽(開闢)을 강조한다.
  - ㄷ. 을은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 ㄹ. 갑, 을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모든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을 :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입도식은 한울님을 깊이 모시겠다고 깊이 맹세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의혹을 깨뜨려 없애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 ① 갑은 불교 개혁을 통해 불법(佛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 ② 갑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을은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 ④ 을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갑, 을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3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혼란한 세상을 구하려면 이단(異端)을 먼저 물리쳐야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학(正學)을 밝혀야 하며, 정학을 밝히려면 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한다.

을 : 우리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런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병 : 동양인은 형이상의 도(道)에 밝고 서양인은 형이하의 기(器)에 밝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 ① 갑은 성리학적 의리 사상을 내세워 서학(西學)을 반대하였다.
- ② 을은 인간 존중과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 ③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갑, 을은 외세 배척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 ⑤ 갑, 병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38.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이(理)는 지극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實)하다. 그 본체는 무위(無爲)하지만 작용[用]을 갖추고 있어 만물에 드러난다. 솔개가 나는 것은 기(氣)이지만, 날게 하는 것은 이(理)의 묘용(妙用) 아님이 없다.  
 을: 이는 형이상자(形而上者), 기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이는 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고, 기는 이 아니면 근거가 없다.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오직 기가 발함에 이가 타고, 이는 통(通)하지만 기는 국한[局]된다.  
 병: 이는 마음[心]이고 성(性)이다.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사람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는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양지(良知)이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 ① 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 ② 을은 이가 기와 결합해야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진리(眞理)를 마음이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이치로 본다.
- ④ 갑과 을은 치우친 기질 속에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 ⑤ 을과 병은 기가 이보다 먼저 발하여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39.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한다.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이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呪文)을 외우며 한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 용해야 한다.

— < 보 기 > —  
 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나.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다.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영(靈)과 육(肉)을 온전히 해야 한다.  
 라.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9.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주변에 도시 국가를 세우며 그들의 고유한 문명을 꽃피웠다. 이러한 도시 국가 중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곳이 아테네였다.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 정치를 실현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운영하였다.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민회(民會)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관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정치 참여 과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 삶과 사회에 있어 좋은 것이나 옳은 것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토론을 즐겨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과 자연의 변화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눈을 뜨고 이를 탐구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서양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의 특징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관심, 행복과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좋은 것 등이 서양 윤리 사상에서 중요한 탐구 주체가 되었다. 또한 옳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윤리의 보편성 및 다양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양 윤리 사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서양 윤리 사상의 또 다른 뿌리는 헤브라이즘(Hebraism)에서 찾을 수 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 유대 민족의 유대교로부터 이후 전개된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문화 및 전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神)에 대한 믿음이다.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율로서 제시되었다. 또 살인과 절도에 대한 금지, 부모에 대한 공경 등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이 신의 명령이자 인간 삶의 규율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훗날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양 윤리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인간과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신, 신과 인간의 관계, 이에 바탕한 인간 삶의 본질과 원리 등에 대한 탐구가 서양 윤리 사상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그 근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이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

었던 반면,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여행하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제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다니면서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수사학 이야말로 도시 국가에서 시민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 성공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참된 앎**, 즉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며,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무지(無知)**에서 찾았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합일설(知德福合一說)**을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문답법(산파술)**을 사용하여 참된 앎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실 사회에 순응하여 쾌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삶, 즉 자신의 영혼에 관해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란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다양하고 상대적인 도덕규범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삶은 아테네 시민들을 도덕적 성찰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신념을 잘 보여 준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상가들이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올바른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스스로 탐구해 보아야 한다.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의 상이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옳음의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윤리적 보편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가 극단화되어 단일한 가치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를 획일화할 수 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로부터 유래한 도덕규범의 상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쟁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는 두 입장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윤리 사상을 검토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4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사람에게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을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① 갑 :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 ② 갑 :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 ⑤ 갑, 을 :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4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참되게 살려는 자는 욕구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용기와 지혜로써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절제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제와 정의를 칭송한다. 사치, 무절제, 자유가 덕이자 행복이다.

을 :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의 모든 성질들은 지혜를 동반하느냐 무지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되기 때문이다. 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 ① 갑은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신의 탁월성이 지혜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나쁜 행동이 무지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선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다.

42.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앎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소식을 들었다. A는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②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③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 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10. 덕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가르침을 계승하여 인간의 영혼에 있어 정의(正義)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도 탐구하여 개인과 국가 모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이와 같은 사상은 그가 제시한 세계관 및 이에 근거한 이상적 인간과 국가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로 구분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데아(idea)**는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재로서 완전한 것이다. 반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서 변화하며 불완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노을, 아름다운 그림 등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수많은 삼각형도 모두 삼각형의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이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실재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에 의해 얻을 수 있지만,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각각의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를 **선(善)의 이데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참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와 기개를 잘 다스려야하고, 욕구와 기개는 이성을 잘 따라야 한다. 따라서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톤은 욕구는 **절제**, 기개는 **용기**, 이성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 영혼에서 **정의(正義)**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각 개인이 타고난 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 일을 담당하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을 **생산자, 수호자(방위자), 통치자**의 세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생산자는 **절제**, 수호자는 **용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절제는 모든 계급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哲人)**이라고 설명하였다. 플라톤은 이러한 세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의 덕목을 갖추고 조화롭게 국가를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완벽한 상태인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플라톤은 개인에 있어서는 인간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국가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플라톤과 마

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으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현실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이며, **선(善, 좋음, good)**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의술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장사는 부(富)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각각의 선은 또 다른 상위의 선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의술의 목적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이지만, 이는 건강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선이 보다 상위의 목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인간 행위의 최고선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행복’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며 완전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탁월성으로서의 덕(德)**을 갖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 감각이나 욕구와 같이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영양이나 성장과 같이 이성과 관련 없는 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덕(탁월성)**을 **품성적인 덕**과 **지적인 덕**으로 구분하였다.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덕이다. 구체적으로 용기, 절제, 친절 등이 있다. 품성적인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 즉 **중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감한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중용은 산술적인 중간 상태와 다르며 각자의 상황마다 중용에 따른 선택과 행동도 달라지는데, 악덕은 중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이 중용의 상태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품성적인 덕을 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적인 덕은 영혼의 순수하게 이성적인 기능이 탁월하게 작

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덕이다. 구체적으로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등이 있다.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며, 품성적인 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실천적 지혜**는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인 품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은 **현대 덕 윤리**로 계승되었다. 현대 덕 윤리 사상가들은 특정한 도덕 원리나 규칙만을 제시하는 ‘행위’ 중심의 윤리로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현대 덕 윤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좋은 품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참된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윤리 사상은 데카르트, 칸트와 같이 이성을 바탕으로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는 진리를 추구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의 경험주의와 현대 덕 윤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이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덕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도 같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사상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수용되어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윤리학적 물음을 던지고 이를 이성적 논변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탐구함으로써, 서양 윤리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사상가들로 평가된다. 이들의 사상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 합리성에 바탕한 더욱 풍성한 논의를 펼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4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침과 굴종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45.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욕구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갖출 수 있다.
-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을 :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 용기라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①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② 갑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앎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47.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는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므나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므나(mna) :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 보 기 >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B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을 :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며, 인간 본성에 따라 나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① 갑 :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갑 :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③ 을 :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④ 을 :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 주는 품성적 덕이다.  
⑤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11. 행복 추구의 방법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주요한 탐구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주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그리스인이 겪은 시대적인 혼란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도시 국가(polis)가 해체되었다.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공동체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제국의 신민(臣民)으로 전락한 이후 정치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연대감마저 상실하였다.

더욱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전쟁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더 나은 국가의 실현보다는 어떻게 해야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의 사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감함을 불러 일으키며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이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전제하고,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쾌락주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식욕이나 성욕 등의 충족과 같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은 순간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이른바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쾌감을 탐닉하도록 부추겨 결국 고통을 안겨 준다. 즉 무분별한 욕구의 충족이나 사치, 향락 등으로부터 주어지는 쾌락은 더 높은 강도의 더 많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상태가 평정심(平靜心), 즉 아타락시아(ataraxia)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의 상태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욕망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우주, 신,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

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적으로 맺은 인간관계가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는 대신 사적인 공간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정의롭게 사는 삶을 권장하였다.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며,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는 근대의 경험론과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점은 근대의 경험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점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로 계승되었다. 특히 쾌락을 구분했던 점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한 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학파**는 기원전 3세기 초, 그리스 사상가 제논이 창시하였다. 이후 스토아학파는 에픽테토스와 같은 노예 출신부터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상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스토아학파의 주된 관심은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얻는데 있었다.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평온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부동심(不動心)**, 즉 **아파테이아(apatheia)**라고 한다.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욕망, 공분, 쾌감, 슬픔 등과 같은 비자연적인 정념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행위로 이끈다. 물론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등 자연적인 정념도 있지만, 스토아학파는 평온한 삶을 위해 이러한 정념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욕망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금욕주의**라고 불린다.

스토아학파는 정념에서 벗어나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성에 따른 삶**을 제시하였다.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이성(logos)**은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으로 신, 자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에 따른 삶이란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자 신의 섭리와 예정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신에 의해 운명 지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의 몸이나 소유물, 지위 등 외적 조건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지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 마음과 관련된 것뿐이다.

이처럼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토아학파는 자연법 사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을 의미한다. 이성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인간

에게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의무'라고 하였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나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제시하였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이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스토아학파는 각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 서양의 윤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 것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성에 부합하는 삶과 의무에 대한 강조는 칸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세계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류애에 대한 강조는 로마의 만민법으로 계승되었으며, 자연법 사상은 중세의 아퀴나스와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에게로 이어졌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부와 명예 등 외적인 조건의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멀리한 반면 스토아학파는 금욕적 생활과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에피쿠로스학파는 개인적 쾌락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고 사적인 생활만 중시함으로써 이타적인 공공생활을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인간의 의지와 정서의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의 사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먼저 욕망의 절제를 통한 행복의 추구는 물질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또한 평정심과 부동심의 추구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내적 평온을 통한 행복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49.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을 :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 ① 갑 :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② 갑 :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을 :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④ 을 :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50.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욕망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성의 힘으로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을 :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 헛된 생각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갑은 덕을 갖추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의 우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곧 쾌락임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덕이 쾌락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51.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너와는 관계없으며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을 :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두를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심신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정치 참여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쾌락에 따라 택하거나 피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상태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

을 :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념에 이끌리지 말고 자연의 섭리인 이성애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 ① 갑 : 이성적인 인식을 통하여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을 :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을 :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며 사는 삶을 중시해야 한다.

5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ㄴ. 갑 :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ㄷ. 을 :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ㄹ. 갑, 을 :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본성과 운명에 따라 할 일을 정해야 욕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덕을 따를 수 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을 검토해야 한다.  
 을 : 본성에 심어진 일차적 선은 쾌락이다. 그런데 쾌락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득과 실이 되는지를 측정,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① 갑 :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불굴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 쾌락을 누리려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④ 을 :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욕망과 쾌락도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⑤ 갑, 을 :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해야 한다.

12. 신앙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립된 종교로서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교는 야훼(Yahweh)를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으며, 메시아(Messiah)의 도래와 지상 천국의 건설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이다.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한 예수(Jesus, B.C. 4?~A.D. 30?)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유대교의 신앙은 유대인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신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수는 유대교의 신앙이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얽매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율법의 참된 정신은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산상 수훈을 통해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교하였다.

산상 수훈에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그중 이웃 관계와 관련하여 예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차별 없는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예수는 인류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사랑, 즉 아가페(agape)를 받았으므로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예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보편 윤리로서의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율법적 의무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며, 마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예수가 강조한 사랑의 윤리와 보편 윤리는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통일된 교리를 갖추지 못했으며, 다신교가 지배적이었던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등이 고대 그리스 사상을 수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이후 그리스도교는 점차 세계 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중세의 교부에 의해 확립되었다.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사랑의 윤리를 체계화하였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 용기, 정의, 지혜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원죄**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므로,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를 설명 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 등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 사상을 정립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 사상은 고대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에 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부 철학의 뒤를 이어 중세 후기에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으며,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완전한 행복이란 내세에 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 아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을 실천하여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퀴나스는 행복 실현에 있어서 신앙을 중시하였지만 이성 또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자연법 사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의 영원한 법칙인 영원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다.

이러한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고 정당화된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에 의해 인식된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듯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정법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그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스콜라 철학은 신앙 중심이었던 교부 철학에 비해 이성

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신앙과 이성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결국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로 귀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다. 스콜라 철학의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에서도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근대 윤리 사상이 싹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으로 현세에서의 삶을 더욱 중시하는 특색을 띠게 되었다. 종교 개혁은 루터(Luther, M., 1483~1546)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는 참된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으며,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의 권위와 부패를 비판하였다. 이후 칼뱅(Calvin, J., 1509~1564)은 구원이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또한 그는 직업이 소명이자 이 땅에서 신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이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신의 은총에 의한 영원한 행복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한다. 또한 사랑에 기초한 윤리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교의 자연법은 천부 인권을 강조한 근대의 자연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성별, 빈부, 인종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5. 중세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행복은 이성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 ① 갑 :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갑 :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 ③ 을 :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 ④ 을 :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 ⑤ 갑, 을 :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5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을 : 신은 최고 존재이며, 무(無)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본다.
- ④ 을은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 지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57.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한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만든 만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 < 보 기 > —

ㄱ.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ㄷ.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ㄹ.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만으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8.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고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 ② 자연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다.
- ③ 신의 의지인 영원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도 불변한다.
-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 ⑤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59.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 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을 :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① 갑 :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 ② 갑 : 신앙은 이정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③ 을 :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 ④ 을 :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13. 도덕의 기초

서양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자연 과학의 발달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었다. 근대에는 중세의 신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경험이 중시되었고, 인간을 사고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근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파악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이 아닌 인간에서 찾았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사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근대에는 지식을 찾기 위한 토대와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지식과 사유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합리론**이라고 한다. 합리론은 수학적 논리와 추론에 의해 얻은 지식을 중시하였고, 확실한 원리로부터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얻어 내는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합리론의 기초를 닦은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다. 그는 이성적 추론의 토대가 되는 확실한 원리를 찾기 위하여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그 결과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심)하는 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아 확실한 지식을 연역하고자 하였다.

근대의 합리론 사상가들은 도덕적인 삶의 근거, 즉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두면서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정이나 욕구를 다스리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가인 **스피노자**는 이성적인 삶을 지향하였으며, 자연을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그로부터 필연적인 질서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만물은 인과적 질서 속에서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을 느끼고, 반대로 자기 보존을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을 느낀다. 스피노자는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만약 슬픔, 마음의 동요, 불안 등과 같은 정념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 하게 되면 정념에 예속된다. 스피노자는 정념에 예속된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온갖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행복이며 최고선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선(善)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도 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이성을 강조하고 정념에 예속되는 삶을 경계하였다. 그렇다고 감정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근대의 합리론은 자아의 이성 능력을 강조한 데카르트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주장한 스피노자를 거쳐, 이성적 판단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칸트 윤리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에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에서 찾는 입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경험론**이라고 한다. 경험론은 사유와 지식의 원천을 감각적 경험에 두고,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지식을 중시하였다. 또한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얻어 내는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경험론의 선구자인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아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인간이 지닌 선입관과 편견을 **우상(偶像)**이라고 칭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여 얻어 낸 올바른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근대의 경험론 사상가들은 도덕적 삶의 근거를 인간의 경험적인 요소에서 찾았다. 이들은 타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두면서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가인 **훔**은 도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인데,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훔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며, 이성은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다.

또한 훔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면 좋은 것 [善]으로, **부인(否認)**의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나쁜 것 [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훔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흠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왜감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흠은 이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우려했을 뿐이지 이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사용해야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감정임을 밝히고, 이성은 감정을 위한 도구적 역할에 한정하려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중시하는 근대 경험론의 전통은 베이컨을 거쳐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한 흠으로 이어졌다. 사회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를 강조한 흠의 윤리 사상은 공리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 또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의 관점은 실용주의 윤리 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60.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을 :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 ① 갑 :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 ② 갑 :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 ③ 을 :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④ 을 :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 을 :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6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을 :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갑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 ② 갑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6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을 :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 형식 논리학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

- ① 갑 :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 ② 갑 :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
- ③ 을 :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
- ④ 을 :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 ⑤ 갑, 을 :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63.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을 :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해서이다. 도덕적 선악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 ① 갑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64. 갑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사람이 어떤 상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감소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을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 ①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 ② 자연법칙에 관한 앎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 ③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 ④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 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앎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14. 옳고 그름의 기준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의무론**이라고 한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 산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또한 의무론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무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실천 이성이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선의지를 저절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정언 명령은 ‘무조건 OO하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을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와 같은 정식(定式)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욕구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는 고귀하며,

이러한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인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칸트의 윤리 사상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나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무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칸트 윤리 사상은 도덕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정언 명령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서양 윤리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칸트의 윤리 사상은 현대로도 이어졌다. 그리하여 칸트 윤리 사상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그 사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현대 칸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로스**이다. 그는 칸트 윤리 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하면서도 한계로 지적되는 정언 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의무(prima facie duty)를 제시하였다.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와 달리 한번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로 ‘직견(直見)적 의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의무들이 여기에 속한다.

조건부 의무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만약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무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된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의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의무에 의해 미루어진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 칸트주의는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칸트 윤리 사상을 계승한 현대 칸트주의는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흔들리지 않는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칸트주의는 인권 사상 및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윤리 사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한다.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결과론은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경험론을 계승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공리주의를 체계화한 벤담과 그의 제자인 밀의 윤리 사상을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위해야 할지를 알려 준다. 즉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功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리란 유용성을 의미하며, 벤담이 말하는 유용성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결과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는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밀**은 벤담의 윤리 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쾌락, 즉 행복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보다 훨씬 우월하다.

또한 밀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한 쾌락임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밀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포함된다고 보고,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다른 사

람의 쾌락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밀은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한 쾌락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소수자의 인권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오늘날 현대 공리주의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고전적 공리주의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현대 공리주의로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선호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는 달리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인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을 설명한다. 즉 선호 공리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 주는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선호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감각을 지닌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개체가 자신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은 각 개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인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역직관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진실을 말하라.' 혹은 '해악을 끼치지 마라.'와 같은 어떤 행위의 규칙이 공리의 원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면, 각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 확실히 경제적이다. 또한 채택된 규칙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과 상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이 현대 공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감각을 지닌 동물의 행복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공리주의는 실천 윤리학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공리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행위 규칙을 도출하여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사회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6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6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더라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  
**을** :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 ① 갑 :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 무조건적 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 ③ 을 :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 ④ 을 : 고급 쾌락들을 경험한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갑, 을 : 행위자의 품성을 배제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다.

67.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을 :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 ① 갑 :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② 갑 :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 ③ 을 : 실천 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 ④ 을 :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 ⑤ 갑, 을 :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68. 다음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이념은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69. 갑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 을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②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 ③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 ④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 ⑤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70.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과 현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① 갑 :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 ④ 을 :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현대의 윤리적 삶

19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들이 등장하였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존주의이다. 여기에서 실존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주체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실존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이성주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사회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비인간화 및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실존주의이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란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해야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끝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실존 단계이다. 그러나 심미적 개인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절망하게 된다. 이 절망으로 인해 개인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실존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낀 개인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실존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신 앞에 섰던 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간다. 또한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하이데거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고 "실존

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컵과 같은 사물은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실제 컵이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별성을 강조하여 자칫 보편적 도덕규범을 부정할 우려가있다. 그렇지만 실존주의는 현대인의 삶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실존주의는 현대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한다. 실존주의는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는 오늘날 개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인간 소외와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 '실천' 등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프라그마(pmgma)에서 유래한 실용주의(Pragmatism)는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혁 정신과 실험 정신을 담고 있다.

실용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전개하였다.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하면 지식과 도덕도 새롭게 정의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퍼스에서 비롯되어 제임스와 듀이를 거쳐 크게 발전하였다.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퍼스는 실용주의의 격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용주의의 격률이란 어떤 것이 옳으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제임스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신념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식과 신념은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이에 그는 이롭다는 것과 옳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퍼스와 제임스를 계승한 듀이는 실용주의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지식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도구주의**라고 불렀다.

도구주의 입장에서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변하는 고정적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실용주의는 보편적인 도덕을 부정하여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진다거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자칫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현대인의 삶에 몇 가지 윤리적 시사점을 준다.

먼저 실용주의는 지성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덕적 가치 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성적인 방식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도덕의 진보와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실용주의는 다원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는 실용주의 태도는 가치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관용적 태도와 연결되어 다양한 가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한다.

71.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의 본성은 없다.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을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

- ① 갑 :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② 갑 :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③ 을 :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 ④ 을 :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

7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정신이며, 정신은 곧 자아이다. 자아는 자기와 맺는 관계이며, 이런 관계는 무한과 유한의 종합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각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을 : 인간의 실존은 그의 본질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투쟁, 고통, 죽음, 죄에 대한 책임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그 상황에서 좌절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로 나아갈 때 참된 실존에 도달한다.

- ① 갑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객관적인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윤리적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참된 실존을 찾으려면 타자와의 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초월자와 단절해야 인간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73.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인간은 말이나 소와 다르게 정신 안에 이성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이다.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의 본질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 인간은 이끼나 꽃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나중해야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 ① 갑 : 인간은 목적 지향적 활동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갑 : 지나침과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다.
- ③ 을 : 인간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 ⑤ 갑, 을 :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7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을 :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 ① 갑 :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 ② 갑 :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 ③ 을 :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④ 을 :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75.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을 :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 ①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임을 모르고 있다.
- ④ 행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

7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로서 개별자인 나 자신이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한 개별자인 내가 절대자인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을 : 진리를 유용성으로 보는 것을 특정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용성이 노상 강도의 이익에 의해 측정될 수는 없다. 그 가치는 도로로서의 효율성과 그 실제 기능 여부에 의해 측정된다.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유용성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갑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실존의 문제는 오직 주체적 결단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 16. 사회 사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사회는 인간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사상이 형성되었다.

**사회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와 해석을 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대에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사상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사상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사상은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된 더 나은 사회의 모습도 제시한다. 공자는 인의(仁義)의 정치가 구현된 사회를 추구하였고,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사회사상은 타락한 정치 공동체를 개혁하여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상 사회를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상 사회**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이상 사회는 인류가 끊임 없이 꿈꾸어 왔으나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 사회는 현실을 개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과 목표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상 사회는 인간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실천 의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사상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과 실현 방법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상 사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예로부터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현실 사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상 사회를 제시해 왔다. 다양한 이상 사회가 제시된 이유는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가 제각각이었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습도 달랐기 때문이다.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 사회로는 공자의 대동 사회(大同社會)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를 들 수 있다.

**대동 사회**는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로 풍요롭고 화평한 세상을 말한다. 공자가 제시한 대동 사회는 누구나 현명하고 유능하다면 등용되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또한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이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구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공동체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된 사회로 **소국과민 사회**를 제시하였다. 소국과민 사회는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이다. 이곳의 백성은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소

박한 삶을 산다. 또한 이들은 온갖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과 같은 무위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소국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이다.

한편 서양의 이상 사회로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를 들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의 이데아에 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상 국가로 제시하였다.

모어는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마르크스는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도덕적 타락, 사기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 자본의 소유에 따른 차별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사유 재산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상 사회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다툼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호 간의 믿음과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공자의 대동 사회,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不爭] 겸손하게 [識虛] 사는 노자의 소국과민 사회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이상 사회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평등을 통해 사회 안정과 복지를 이루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소유와 생산에서 경제적 평등을 주장한 모어의 유토피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이상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도덕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개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인 공자의 대동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인 모어의 유토피아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평화로운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 사회는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되며, 나아가 현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공평한 경제 제도에 바탕을 둔

분배 정의의 실현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재화가 풍부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면 불평등이 심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의로운 분배와 복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 재화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원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개인의 자아실현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7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정의로운 국가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군인, 생산자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통치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을 :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 ① 갑 :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 된다.
- ② 갑 :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 ③ 을 :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재화가 분배된다.
- ④ 을 : 국가 기능의 확대에 복지가 최대한 보장된다.
- ⑤ 갑, 을 : 생산과 소유에서 절대적 평등이 실현된다.

7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  
 을 :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

- ① 갑 : 공동으로 노동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 ② 갑 : 경제적 풍요로 인해 사회 안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③ 을 : 각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 ④ 을 : 수호자 중에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 ⑤ 갑, 을 :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이다.

7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 보 기 > —

ㄱ. 갑 :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ㄴ. 갑 :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ㄷ. 을 :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갑, 을 :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17. 국가

국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되며,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집단이다.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동서양의 주요 입장을 살펴보자.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이다. 유교는 국가를 가족과 관련하여 이해하였으며,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를 국가의 기원이자 본질로 보았다.

공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교는 가족 윤리가 국가의 정치 원리와 서로 통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유교는 효제(孝傑)와 같은 가족 윤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부모를 섬기는 도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는 국가 안에서 효제의 인륜을 실현하여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로 인식한 유교의 국가관은 동양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도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소피스트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가 국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국가론을 제시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생겨난 인간 간의 결합**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자연스럽게 국가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국가는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실현하여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즉 그는 국가를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행복의 실현이라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로 인식하였다.

공화주의란 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생각이나 이념을 뜻한다. 공화국은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 낸 정치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 보장**이 바람직한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국가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란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인이 언제든지 노예의 삶을 간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자한 주인을 만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법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시민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시민적 덕성이 잘 발휘되어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공화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에 헌신해야 한다고 본다.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의 기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동의한 계약**에 있다고 본다. 각 개인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홉스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로크는 개인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재산권, 자유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한편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지배 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본래 인류는 자급자족하며 계급이 없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살았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산력이 높아지자 사유 재산과 소유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는 계급 착취 과정에서 국가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국가를 지배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 계급 갈등이 없어지고 국가는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국가 소멸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유교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근대 이전의 사상은 국가를 도덕 공동체로 보아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에 사회 계약론이나 마르크스 등 근대 이후의 사상은 국가를 모든 개인이나 일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국가는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한 국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이 것이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유교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곧 군주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만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이 군주에게 집중되었다. 군주의 일은 민본 정치를 통해 위민(爲民)을 실현하고, 국가를 인륜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주는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방위력을 길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맹자는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군주는 내쫓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공화주의는 예속되지 않을 자유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치를 보장함으로써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고, 국가를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것으로 만들 때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면에 국가 안에서 모든 시민이 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의에 종속될 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 계약론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국가의 정당성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본래의 목적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과 같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본가 계급을 보호하는 일에 한정되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방임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각종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 자체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국가관은 앞서 제시한 동서양의 국가관과는 달리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국가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 외적의 침입과 국내의 범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속이 어렵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보험, 공적 부조,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높은 도덕성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시민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를 건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국가는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며,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고양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비로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8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을 :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 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 보 기 >  
 ㄱ.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1.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 보 기 >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2.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① 갑 :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② 갑 :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적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 ③ 을 :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④ 을 :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⑤ 갑, 을 :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83.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 ① 갑 :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② 갑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 ③ 을 :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 ④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 ⑤ 갑, 을 :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84.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이자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85.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8. 시민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 사회이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를 자연권 사상에 두고 있다.

자연권 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 인권(天賦人權)**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홉스, 로크 등 근대의 사회 계약론자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보존이라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생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편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자연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중세 유럽과 르네상스 시대의 절대왕권에 대항하면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연권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 혁명(1776), 프랑스 혁명(1789) 등과 같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지도 이념이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근대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로 확립되는데 기여하였다. 즉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 즉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시민이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공동체의 누구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예컨대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자는 약자를 언제든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또한 법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수는 다수의 횡포에 종속될 수 있다. 즉 독재나 다수의 횡포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하여 간섭할 수 있는 권력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공화주의에서는 법이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나아가 공화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심의를 통해 구성되고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본다.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 인권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시민이 만들어 내고 향유하는 정치적, 사회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렇듯 공화주의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정당한 지배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공화주의는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이에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그러나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의무와 공동선에 무관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정치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개인선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 그러나 공동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공화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의 개인선을 경시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아실현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이다.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할 것이다.

공화주의는 특정인의 지배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긴다. 공화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며, 공화주의 또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공동체를 중시한다. 결국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선이나 공익을 경시하지 않으며, 공화주의의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또한 개인선이나 사익을 경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립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용, 애국심 등과 같은 시민적 덕성의 함양에 관심을 기울인다. 먼저 관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며,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한다. 이때 관용은 다른 사람의 견해나 사상,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를 참거나 허용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유주의는 이른바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기도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관용을 비지배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시민이라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본다. 나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자의적인 간섭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에서의 관용은 서로의 차이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지배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자율성 및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모두 애국심을 중시한다. 그러나 두 사상이 말하는 애국심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에서 애국심이란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하며, **헌법 애국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원리,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반면 공화주의에서 애국심이란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자발적 사랑**(카리타스, caritas)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권력자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정치 공동체의 자유를 수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된다. 또한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치 공동체의 문화, 역사, 전통 등과 무관한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자유주의의 헌법 애국주의와도 차이가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시민적 덕성으로서의 관용과 애국심의 가치를 강조한다. 공동체의 시민은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며, 애국심을 통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가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8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 :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 보 기 >

- ㄱ. 갑 :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ㄴ. 을 :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 ㄷ. 을 :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ㄹ. 갑, 을 :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7. 다음 사회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 기 >

-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8.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축소된다.
- ② 갑 :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를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 ③ 을 : 법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 ④ 을 : 자의적 지배가 없는 정당한 간섭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낫다.
- ⑤ 갑, 을 :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89.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 자유란 사적인 형태의 예속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권력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속으로 인해 자유가 부정되면 시민들은 공포에 빠진다.  
 을 : 자유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외부의 의도적인 강제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A -- 아니오 --> C{C}
    C -- 예 --> E[을의 입장]
  
```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 보기 >
- ㄱ. A : 자유를 실현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가?
  - ㄴ. B :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 ㄷ. C :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아야 하는가?
  - ㄹ. C :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민주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로 국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가 합쳐진 말로 군주제나 귀족제와 달리 국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가리킨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먼저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평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에게 공공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는 나이,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를 감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의원 등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아가 이들이 구성한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보편적인 정치 체제의 지배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이후부터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재산을 가진 남성만이 시민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노예, 외국인 등의 정치 참여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시민으로 인정받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근대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에는 근대의 사회 계약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 계약론은 절대 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데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약을 토대로 형성된 정치 공동체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로크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한편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입법자가 되는 계약을 통해서만 시민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지만,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자인 공동체 내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재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루소는 정치 공동체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공동선의 실현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로크와 루소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은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지향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 원리와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헌법상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대체로 공적인 집회 장소에 시민이 직접 모여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민이 모든 사안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대에는 엘리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시민이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보다는 정치가의 지배라는 성격이 강한 정치 제도이다. 유권자의 투표가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 즉 시민은 투표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며, 이후 유권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표자를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책임도 주어진다.

그런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얼마만큼 잘 대표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시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대표자들을 통해서만 표출됨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 욕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시민은 자문 위원회나 공청회, 청문회 참여, 시민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게로 확대한다. 그러나 참여한 시민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통해 시민은 자신의 선호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대표자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시민의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소통과 유대 등의 가치 규범을 핵심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규범적 특징은 구성원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치 공동체의 법이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롤스의 입장을 수용하여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전제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을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민 불복종을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한 롤스와 차이가 있다.

시민 불복종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의 원리를 따를 때 그 행위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뒤따르는 처벌을 감수하는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전제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민과의 유대를 해치는 행동이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이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정책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 결정 자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 협의, 합의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이며,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 ①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한다.
- ④ 투표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만 정책이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91. (가), (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

(나) 시민들의 선호는 변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① (가)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9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희생인이 되고 있다.

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9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 < 보 기 >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20. 자본주의

16세기 무렵 유럽 사회는 신대륙의 발견과 새로운 항로의 개척을 계기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다. 이때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티즘 등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체제의 구속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고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면, 검소, 성실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전적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애덤 스미스**이다. 그는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거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한다.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케인스**이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거대화, 무능과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수정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기업 민영화, 복지 정책의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 모두를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본주의는 신분제에 따라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전통적 시장 경제와는 달리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과 사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 결과 소비와 생산, 계약 등 경제 행위

에 대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보상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급자족적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시장 경제와는 달리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허용한다. 따라서 모든 재화는 상품으로 생산되어 자신의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분위기 속에서 판매되었다.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 소유권과 자유 시장 경제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먼저 자본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여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자유 경쟁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재화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기여하였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인해 다원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계몽과 해방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여점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부를 크게 증대시켰다. 하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빈부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빈부 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 문제를 비판하며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질을 중시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물신 숭배(物神崇拜)**라고 정의하고, 노동력의 산물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이 오히려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인간 소외란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물질적 가치만을 좇으면서 인간성을 상실하

는 현상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과편화함으로써 노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자아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였다. 즉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먼저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 경제 행위를 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경제 활동에서도 경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들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원료의 재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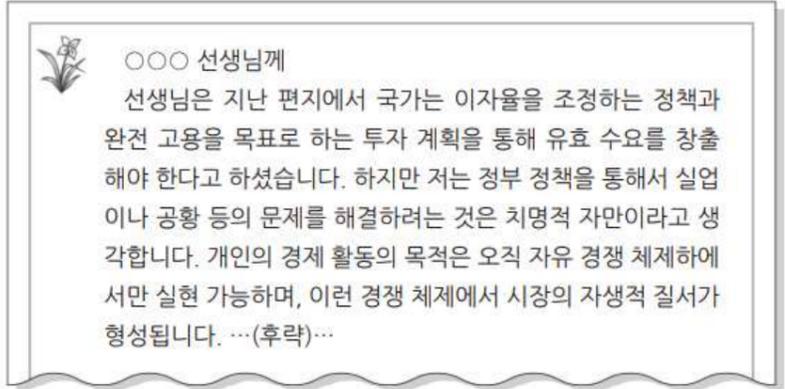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먼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상생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하여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실업과 빈곤, 재해와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경제 체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개별 국가의 시민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즉 경제적 불평등은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발생하므로 국제 사회에서의 정의 실현을 통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95.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 ③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④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 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9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을 : 정부의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한다. 경제 계획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 < 보 기 > —
- ㄱ. 갑 :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ㄴ. 갑 :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ㄷ. 을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 ㄹ. 갑, 을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7.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자유롭게 경쟁할 때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인 낭비로 가난해지기도 한다. 공공 수입이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을 : 개인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고용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 ① 이익의 추구가 공익의 확대로 귀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시장 경제 질서의 자기 교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시장 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국가의 재분배 조치가 불황기의 효과적 대안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국가 개입 확대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을 간과하고 있다.

9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 보 기 >

ㄱ. (가) :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ㄴ. (나) :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

ㄷ. (나) :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

ㄹ. (가), (나) :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9.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계획 경제의 틀 아래 산술적으로 균일한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인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 ⑤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10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나) 모두 부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주의의 계획은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전체주의적 계획과 선명히 대조된다. 국가는 대규모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적 소유자도 생산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독점의 심화로 자본가들은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저항은 확대된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노동 간 모순의 격화로 수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소수에 의한 민중의 수탈이 민중에 의한 소수자의 수탈로 전환된다.

- ① 국가와 계급이 소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가?
- ②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주의가 실현되는가?
- ③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소외를 조장하는가?
- ④ 이상 사회는 무산 계급의 폭력 혁명과 독재로 실현되는가?
- ⑤ 자본주의에서 이상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실현되는가?

21. 평화

평화는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자 지향점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복지, 평등, 자유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좀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물리적 폭력의 제거에서 더 나아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양 사상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내면적, 도덕적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양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는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꿈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기이안인**이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화평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이상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대동 사회**에 잘 나타나 있다. 대동 사회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사회이다.

목가의 창시자인 목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이 존비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으로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목자는 보편적 인류애를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하였다.

목자는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겸애(兼愛)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겸애**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목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어야 전쟁과 같은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목자는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비공(非攻)**, 즉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은 나라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해야 하므로 통치자는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교에서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평화 실현을 위해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양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貪], 화냄[瞋], 어리석음[癡]을 제거하고 연기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은 무차별적 사랑인 **자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기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불교의 **생명 존중**의 평화 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명을 훼손하는 폭력을 거부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 정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여 통치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동양 사상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도덕성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양의 평화 사상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

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서양의 이상은 근대의 에라스무스, 생피에르, 칸트 등과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사상가인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비폭력의 평화 사상을 계승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는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서 악을 징벌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은 본성상 선보다 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쟁에서는 악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겪기 때문에 죄 없는 다수가 혹독한 제앙에 휘말리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의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전쟁을 위한 무기 구매, 용병(傭兵)의 모집 등에 드는 비용, 전쟁에 의한 파괴와 통상의 단절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전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보았다.

**생피에르**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나 도덕성에 호소하는 대신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적 이성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생피에르는 전쟁이란 인간의 이기심이 대립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무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전쟁이 비록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지만, 오히려 이기심을 이용하면 평화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군주에게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여 평화가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군주 스스로 평화를 지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생피에르는 이 같은 공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주들의 연합에서 각국은 주권을 존중받고 영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해 해결한다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전쟁이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영구 평화론』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맹의 창설과 세계 시민법의 조건 등을 담은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연맹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칸트는 국가 간의 교류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주권 국가의 존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가 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의 평화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류의 염원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을 중시하고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과에서 발전해 온 사상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지역 또는 국민 국가 중심의 사고나 태도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은 국가 간, 사람들 간의 관계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엮여 있는 지구촌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닐까?

첫째, 세계 시민주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기아와 난민 발생, 인권 침해, 생태계 파괴,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등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소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여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인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세계 시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류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셋째, 세계 시민주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타인과 타국을 자신과 자국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갈등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기도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식량이나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 윤리에 기초한 지구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인구 감소 정책이나 식량 분배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외 원조를 제안한다. 해외 원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국제주의나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 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각 사회 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세계 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롤스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선에 두고 있지만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전 지구인의 복지 향상에 두고 있다. 하지만 롤스와 싱어 모두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구촌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01.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10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10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 차별과 같은 간접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을 : 전쟁은 항상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전쟁의 정당성은 개시, 수행, 종식 등의 전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① 갑 :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 ② 갑 :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를 통해 완성된다.
- ③ 을 :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평화를 위한 정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10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을 :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타인의 삶과 행복을 명목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병 :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해외 원조를 최소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 의무라고 본다.
- ③ 병은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자원 빈곤국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갑, 병은 국제 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국가 간 부의 격차 해소 후에는 원조 의무가 없다고 본다.

10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우리는 이의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갑 :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ㄴ. 갑 :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ㄷ. 을 :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ㄹ. 갑, 을 :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④	2	④	3	①	4	②	5	①
6	①	7	①	8	④	9	②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⑤	17	③	18	⑤	19	③	20	④
21	④	22	①	23	①	24	②	25	⑤
26	⑤	27	⑤	28	②	29	⑤	30	④
31	④	32	①	33	⑤	34	③	35	⑤
36	④	37	④	38	⑤	39	①	40	①
41	③	42	②	43	④	44	①	45	②
46	③	47	③	48	⑤	49	③	50	④
51	④	52	②	53	②	54	③	55	②
56	③	57	②	58	⑤	59	②	60	⑤
61	③	62	①	63	④	64	⑤	65	④
66	②	67	③	68	③	69	②	70	①
71	①	72	⑤	73	③	74	②	75	②
76	⑤	77	①	78	④	79	①	80	①
81	②	82	③	83	⑤	84	④	85	②
86	②	87	③	88	③	89	⑤	90	①
91	④	92	③	93	①	94	②	95	②
96	⑤	97	⑤	98	④	99	①	100	①
101	③	102	③	103	①	104	③	105	①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